

지역주민의 문화마당

광명문화저널

광명문화저널 • 2002 봄 - 제 5호



표지인물 송영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

문화칼럼 - 음악도시 브랜딩하기 / 특집 - 결혼 이야기
논단 - 청소년과 사이버 문화 / 탐방 -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바뀌는 문화 - 지하철역에 오면...

광명문화원

2002 봄

광명문화원

나리 나리 개나리

기형도

누이여

또다시 은비늘 더미를 일으켜세우며
시간이 빠르게 이동하였다.

어느 날의 잔잔한 어둠이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소리 없이 꺾어갔던 그 투명한
기억을 향하여 봄이 왔다.

살아 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
네가 가져간 시간과 버리고 간
시간들의 얽힌 영토 속에서
한 뼉의 폭풍도 없이 나는 고요했다.

다만 햇덩이 이글거리는 별판을

맨발로 산보할 때
어김없이 시간은 솟구치며 떨어져



사진작가 이영환

1947년 대구 출생
1991년 광명사진협회, 16번째 회원전 개최
광명사진단체협의회 회장
광명시 문화예술위원
광명사진 동우회 회장

Contents



표지인물 **송영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

1992년부터 광명시에서 음악 활동을 해온 송영주 선생은 1997년 광명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상임지휘자를 맡아 청소년 교향악단, 청소년 무용단 등 청소년 문화 사업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광명문화저널 제 5 호

발행처 | 광명문화원

발행인 | 정원조

편집인 | 윤철

기획 | 이종락

편집위원 | 한옥현 / 정은경 / 오은영

이은경 / 신란희 / 정현주

발행일 | 2002. 4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2002. 4
제 5 호
광명문화저널

- 2 문화칼럼 / 음악도시 브랜딩하기
- 4 특집 / 결혼식 풍경
- 8 특집 / 변화하는 결혼 문화
- 14 특집 / 결혼 엿보기
- 16 기획 / 2002년 광명에 바라는 문화
- 18 기획 / 문화를 보는 눈 - 음악

지역이야기

- 20 동아리소개 / 뽀구뽀구
- 22 광명을 지키는 사람들 / 충현서원의 등산모자
- 23 만평

기고문

- 24 문화재와 문화재 보호

전통유산

- 26 한국의 축제 - 청도 소싸움축제

논단

- 28 청소년과 사이버 문화

쉬어가는 코너

- 32 유머
- 33 퍼즐

탐방기획

- 34 바뀌는 문화 / 지하철역에 오면....
- 36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 38 천하제일 명산과 사람들
- 40 NewYork Story

문화의 뜰

- 42 수필 - 라이방
- 43 손에 잡히는 도서한권 - 손님
- 44 창가의 토토
- 45 좀머씨 이야기

특별기획

- 46 오리문화축제

광명문화원소개

광명문화원회원 소개

문화원 임원 및 가족 소개

음악도시 브랜딩하기

브랜드가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21세기에 접어든 지금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 역시 전통적인 1차 산업과 달리
'수확체증의 법칙(Increasing Returns to Scale)'의 지배를 받고 있다.
즉, 한번 우위를 선점한 브랜드는 계속 그 우위를 유지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적 마인드와 인프라가 '꽃'의 가치로 황홀하게 피어날 때
브랜딩된 '뮤직토피아' 광명의 미래는
그리 멀지만은 않은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프리첼 · 즐거운 문화 마스터 박기원
(freechal.com/culturenjoy)

비교적 최근에 개통된 7호선 노선을 죽 훑다 보면 더 이상 눈길이 따라가지 않는 곳이 나오게 된다. 더구나 소위 '문화생활'을 할 요량으로 살았다면 그 정도는 더할 것이다.

7호선의 코트머리에 있는 철산-광명 지역이 바로 그렇다. 그곳은 구로와 서울 사이를 잇는 출퇴근 통로 외의 의미를 지닌 적이 별로 없었다. 물론 애초에 위성도시 광명건설의 목적이 베드타운(Bed-town)이었다지만, 오늘날 외부인의 눈에 비친 광명은 글자 그대로 잠들어 있는 회색빛깔의 이미지 자체일 뿐이다.

하지만 모든 위성도시가 그런 운명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 이웃 부천의 상황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점에서 타산지석 감이다. 이미 지역축제를 넘어서 전국적인 인지도와 명성을 얻고 있는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나 지역 교향악단의 위상을 넘어 명실공히 국내 최고라 인정 받고 있는 부천필하모닉을 통해 젊은 문화도시로서의 브랜드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곧 지역-도시 브랜딩에 대한 개척정신과 자체 기획력의 확보, 문화도시의 가치를 걸고 지자체 단체장부터 적극적으로 앞장선, 문화와 인프라가 조화롭게 만난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한때는 영국의 대표적 항만도시로 각광을 받던 리버풀이 무역쇠퇴로 인한 경제불황과 공업시대의 어둡고, 피폐한 이미지를 벗게 된 건 단연 비틀즈와 리버풀 교향악단이 빚어낸 음악덕택이었다. 비틀즈 노랫말 속의 페니레인(Penny Lane)과 스트로베리필드(Strawberry fields), 무명 시절 활동했던 캐번클럽 등은 비틀매니아를 넘어서 대중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가보고 싶은 마음 속의 '성지'로 각광 받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리버풀이 엄청난 관광수입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획득하게 된 건 물론이다. 이는 곧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 이를테면 20세기 대중음악

의 총아인 비틀즈의 출신지라는 점을 통해 대중음악의 성지가 연상된다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세계=스위스, 포도주=프랑스, 축구=브라질처럼 대중음악=영국식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게 하는 일등공신이 되었다.

브랜드가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21세기에 접어든 지금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 역시 전통적인 1차 산업과 달리 '수확체증의 법칙(Increasing Returns to Scale)'의 지배를 받고 있다. 즉, 한번 우위를 선점한 브랜드는 계속 그 우위를 유지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유지하고, 투자해 각종 지역축제를 양산해 나가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단발성 이벤트나 매체의존형 기획-마케팅, 지역출신스타 등을 통해 유명세에만 의존하려거나 지역과는 하등의 연관성 없이 자본투여만으로 문화인프라를 이루려는 알뜰한 행정주의의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광명=음악도시의 등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서 말한 브랜딩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문화적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곧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선율과 음, 리듬, 색채 등을 통해 유형의 모든 것들을 달라 보이게 하고, 실제로 달라지게 하는 문화예술적 감성과 이의 보편화 수단인 산업과의 만남에 대한 이해이다.

즉, '먹어서 개인의 재생산에 복무하면 그것으로 완결되고, 한 사람이 2/3를 먹으면 다른 한 사람은 1/3 밖에 먹지 못하는 빵(전통산업)과 달리 세 사람보다는 네 사람이, 네 사람보다는 열 사람이 향유하면 할수록 존재가치가 확장되는 꽃과 같은' 문화산업의 육성이다.

그렇게 문화적 마인드와 인프라가 '꽃'의 가치로 황홀하게 피어날 때 브랜딩된 '뮤직토피아' 광명의 미래는 그리 멀지만은 않은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결혼식 풍경

몇번의 결혼식 참관을 하면서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 결혼까지 이어지는 많은 과정들에 대한 기대감과 즐거움 혹은 어려움들의 다양한 모습에 비해 결혼식은 모두가 다 똑같다.

신랑의 입장부터 (양가 어머니의 식전 행사가 있기는 하지만) 퇴장까지 일목요연한 순서가 있다. 가끔씩 예식진행에 맞추기 위해 순서가 달라지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모든 결혼식의 순서는 수확시간에 배운 순열처럼 규칙이 있다.

결혼식은 신랑, 신부 뿐 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며 여유를 가지고 소중히 치뤄져야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식은 시간에 쫓겨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하객 한쪽에선 웅성웅성하기 일수이며 예식이 끝나기도 전에 식당으로 가는 모습들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시장판이 따로 없는 듯 하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 기계적으로 치뤄지는 결혼식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그래도 요즘은 이벤트성이 가미되어 만세삼창 같은 경우, 코미디언이 결혼식장에서 한 것을 연예프로그램을 통해 확산되면서 흔하게 보는 장면이 되었다.

친구 결혼식때가 생각한다. 전통혼례는 아니었지만 국악기를 이용하여 반주를 구성하고 사물놀이가 그 분위기를 돋우어 아름다운 국악기의 선율과 힘찬 사물놀이패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 결혼식은 평범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 때문에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어서 더욱 더 기억에 남을지도 모른다. 뭔가 특별한 것을 선호하는 것은 신랑 신부이고, 하객과 혼주는 그냥 평범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예식장에서 혼례를 많이 올리는 것도 예식장이 평범한 결혼식 행사장이기 때문이다. 평범하면 무난하다. 최소한 결혼식장에서는 그런 것 같다. 결혼식을 다녀오면 진실한 결혼식을 보고 왔다고 보다는 그냥 통과의 레처럼 치루고 보자는 마음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오래 기억되는 이색적인 결혼식을 몇가지 소개하려 한다.

이색결혼

기존의 결혼식 형태에서 벗어나 결혼식 날을 인생의 커다란 축제로 뭔가 특별한 테마로 이날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관습과 형태와 문화에서 탈피한 결혼식은 하객들에게도 특별한 즐거움을 준다.

※ 달빛아래서의 백년가약 - 야간 결혼식

하늘에선 달빛이 빛나고 바로 옆에서는 물이 졸졸 졸 흐른다면 결혼식이 아니라도 좋을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 하면 낮에 번잡하게 치루는 것을 상상한다. 하지만 감성이 풍부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커플 사이에선 야간결혼식이 유행이다.

야간결혼식의 가장 큰 장점은 야외를 장소로 잡는다는 점과 여유 있게 결혼식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거기다 교통혼잡까지 해소할 수 있으니 하객들 입장에서도 편리한 점은 많다. 원래 전통적인 예식은 해가 진 후에 치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형식이 바뀌어져서 야간결혼식의 목적도 전통적인 의식에 따르기 위해서보다는 분위기를 살리고 예식장 교통의 불편을 더는 데 있다.

축하해주는 것보다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식장을 찾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 속에서 야간결혼식은 하객들에게 영화를 감상하는 기분을 더해주어 좋다. 강이나 호수 위에 달빛이 은은히 비추어진다면 결혼식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고 야간결혼식에서만 할 수 있는 불꽃놀이도 큰 재미이다.

※ 환상적인 바닷속의 결혼식 - 수중결혼식

장소는 10m 물 밑 용궁예식장, 하객은 수천 마리의 물고기떼, 식장은 맑은 물과 미역, 톳, 파래 등 각종 해조류로 장식이 된...환상의 결혼식, 수중결혼식.

수중결혼식은 말 그대로 물 속에서 치르는 결혼식을 말한다. 스킨스쿠버가 일반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수중 결혼식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공간의 특이

함과 아직까지는 전문인들에게만 제한된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 보는 결혼식 중의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2001년 4월 정형수(25), 최혜숙(25) 커플이 수중결혼식을 해 화제가 되었다.

신랑은 카누선수 출신으로 스킨스쿠버 회원이었고 신부는 물속에 처음 들어가 보는 초보자.

4월의 봄바다를 식장으로 정한 이 커플의 결혼식은 조랑말을 타고 해변에 입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조랑말에서 내린 뒤엔 바로 입수. 하얀 다이빙슈트로 예복을 대신했고 신부는 물에 닿아도 지워지지 않는 화장에 화관과 면사포를 쓰고 조화로 만든 부케도 들었다. 거기다 어깨에 8kg의 공기통, 허리에는 10kg이 넘는 납덩이 벨트를 땀다. 바다 속으로 쉽게 가라앉기 위해서다.

바다 밑 예식장에 도착하자 툇으로 장식한 연단 위에 주례가 섰다. 아무 말 없이 손동작으로만 진행되고 동호회 회원만이 참석한 결혼식은 그래도 북적대고 환상적이었다. 잠수용 시계를 예물로 주고 받고 사랑의 서약을 마친 뒤 수중결혼식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바닷속 입맞춤을 거행했다. 호흡용 밸브를 잠시 벗고 하는 바닷속 입맞춤은 그 어떤 순서보다도 경건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들러리들이 잠시 산소통을 열어 보글보글 공기 방울로 환영을 해주었다. 물 속에서도 샴페인을 터뜨렸더니...

일반결혼식의 절차와 수중결혼식의 장점을 잘 살린 케이스다. 스킨스쿠버를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수중결혼식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을 듯 하다.

하지만 스릴이 넘치는 만큼 위험도 뒤따른다는 점을 인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양가 부모님, 친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따로 준비를 해야 한다.

※ 마라톤, 수영, 사이클로 동반자의 시작 - 철인 결혼식

1999년 8월, 인간한계에 도전하는 철인3종 대회장

wedding Special- 1

을 결혼식장으로 선정해 무려 17시간여 동안 결혼식을 올린 철인부부. 안경훈(安敬勳·29), 김옥자(金玉子·28) 부부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8월 22일 제주 남제주군 성산포 일대에서 열린 제9회 한국철인3종 경기대회에서 결혼식을 갖음으로써 험난한 미래를 서로의 사랑과 격려로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커플로 꼽힌다. 수영복 차림에 나비넥타이를 맨 신랑과 역시 수영복에 간편한 면사포를 쓴 신부가 오전 6시50분경 철인경기 출발 장소인 성산포항에서 입장식을 가지면서 결혼식은 시작되었다.

입장 후 축사를 들었고 곧바로 경기에 돌입, 수영 3.9km, 사이클 180.2km, 마라톤 42.195km의 코스를 돌면서 본 결혼식을 치러냈다.

모든 경기 종목을 무사히 마친 이들은 23일 0시경 결승점인 성산일출봉 주차장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양가 부모와 경기 참가선수 등 200여 명의 하객과 함께 성훈선언 등 나머지 결혼식 절차를 마쳤다. 갈수록 사이클결혼식, 산악결혼식, 마라톤결혼식, 수중결혼식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모험을 즐긴다는 점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힘을 주는 동반자로 시작을 하고싶다는 의미도 지닌다.

※ 하늘을 사랑한 커플 - 고공 결혼식

지난 1999년 10월에 특전사에 근무하는 남녀 하사관 3쌍이 합동으로 고공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면서 국내에 알려진 결혼식이 바로 고공결혼식이다.

화제의 신랑, 신부는 김임수중사(26, 당시 나이)—박철순하사(25), 백석기중사(24)—최해영 예비역 하사(24), 이상목중사(26)—강경희하사(24). 경기 광주군 특전교육단에서 열린 제23회 특수전사령관배 스카이다이빙 및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맞춰 열린 이들 결혼식은 시누크 헬기를 타고 1만2000m 상공에 올라간 뒤 결혼식장으로 낙하하는 형태로 치뤄졌었다. 이들 커플들처럼 고공결혼식은 오랫동안 비행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특별히 비행기를 좋아하거나 패러글라이딩에 관심이 많은 커플은 비행기 안이나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빌려 결혼식을 치르기도 한다. 고공결혼식은 전문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결혼식과 혼합해서 하는 게 좋다. 고공결혼식은 사전에 충분한 안전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 시간 엄수가 중요하다. 야외이니 만큼 피로연도 신경을 써야 한다.

※ 촛불 결혼식

양가 어머니가 신랑 신부가 걸어 들어올 통로에 미리 마련되어 있는 초에 불을 붙이면서 입장하는 것으로 결혼식이 시작된다. 깜깜한 어둠속에서 하나둘씩 촛불이 밝혀지고 화려한 촛불로 꽃길의 완성되면 촛불을 든 신랑신부가 입장한다.

주례사가 끝난 후에는 들고 있던 촛불로 사랑의 언약식을 한다. 상당히 숙연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촛불의 일렁거림 속에서 환상적이고 신비한 결혼식을 원하는 신랑신부에게 좋은 연출이 될 수 있다.

※ 주례없는 결혼식

신랑 신부가 직접 언약의 맹세와 부부 십계명을 낭송함으로써 돈을 주고 주례를 사거나 하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이 아닌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환기시켜 줄 수 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두 사람의 사랑이 하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다. 무엇보다도 신랑신부가 직접 꾸려 나가는 결혼식이란 점에서 선호되고 있다.

※ 수목 결혼식

수목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사랑의 정표로 어린 나무를 심고 앞날을 기원하는 특별하면서도 의미가

깊은 결혼식이다. 야외 예식장을 이용하고 신부는 부케 대신 어린 묘목을 들고 입장한다. 일반 식순과 동일하게 진행되다가 식이 끝난 다음에는 나무를 심을 장소로 이동한다. 식목 장소에 도착해서는 사방의 신에게 행복을 기원하는 절을 올린다. 기운을 돌아주는 지신밟기를 한 후 나무를 심고 정결한 물을 주는 것으로 결혼식은 끝난다. 수목 결혼식은 거친 비바람과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사랑의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자는 의미가 있다.

※ 신랑, 신부 동시 입장

신랑이 먼저 식장에 나타나 신부를 맞이하는 기존의 결혼 방식과 달리 신랑 신부가 팔짱을 끼고 나란히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결혼식. 함께 식장에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새로운 가정을 꾸려 나갈 동반자 관계임을 드러낸다는 신세대식 사고방식의 표현이다. '부부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이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 예전엔 신부의 아버지가 없거나 운동권, 재야단체 등에서 주로 이용한 방법이었으나 요즘은 제법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다.

※ 무대 결혼식

- 소극장 빌려 소설이나 연극속 주인공처럼..

특목 뛰는 결혼식,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는다면 무대결혼식이 제격이다. 평소에 꿈꾸어오던 소설이나 희곡의 주인공이 되어 결혼 당일날 그들의 가슴 아픈 사랑을 연극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에 등장하면서 시작이 된다. 연극의 주인공은 아름다운 사랑을 했던 로미오와 줄리엣이 될 수도 있고 이도령과 춘향이 될 수도 있으며 권우와 직녀가 될 수도 있다. 장소는 연극 무대인 소극장이 좋은데 그 시대에 맞춰 무대 세팅이 꾸며진다. 신랑 신부는 연극의 주인공에게 맞는 고유의상을 입어야 함으로 일반결혼식에서 입는 드레스와 턱시도를 장만할 필

요는 없다.

지금까지는 연극 배우들을 중심으로 소극장이라는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무대결혼식은 이보다 한발 앞선 결혼식이다. 실현적이기는 하지만 적은 비용과 신세대 결혼 감각이 물씬 풍김으로 예비 신랑 신부들이 한번쯤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 옷을 벗고 하는 결혼식 - 누드 결혼식

젊은 사람들 결혼식 풍속도가 많이 다양해졌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채로울 수 있을까" 싶은 결혼식 이 있다. 바로 "누드 결혼식" 이다.

자메이카의 한 휴양지에서 "누드 결혼식" 이 열렸다. 발렌타인 데이와 때를 맞춰 열린 결혼식의 주인공은 훌쩍 벗은(?) 11쌍의 연인들이다. 결혼식은 25분간 진행, 2백명 가량의 하객들이 참가했다고 한다. 결혼식 주례는 프랑크 쉼바시오(Frank Cervasio)라는 목사가 봐왔는데 이 사람 전력도 굉장히 특이한 구석이 많다. 95년부터 지금까지 누드 결혼식 주례를 봐 준 게 20번 가량 된다고 한다. 신부는 점잖게 차려 입은 결혼식보다는 누드 결혼식 주례를 보는 게 마음이 더 편하다고 말한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더 좋기 때문이란단.

결혼식은 자메이카의 헤도니즘III(HedonismIII)라는 휴양지의 한 이벤트 회사가 주최했다.

이벤트 업체는 이벤트를 성사시켜서 헤도니즘III를 세계적인 누드 휴양지로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벤트 업체의 이름인 "헤도니즘(hedonism)"이라는 말 자체가 "향락주의"를 뜻한다고 한다.

정리 · 문화저널 편집팀

변화하는 결혼 문화

I. 서론

'전통은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문화 인류학자 함한희는 말했다. 우리가 말하는 전통은 옛날의 모습과 흡사하지만 다른, 과거를 현대속으로 우리 입맛대로 끌어낸 것이라고 하였다. 전통도 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는 변화 속에 살고 있다. 상상을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이 현대 속에 살고 있다. 변화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진리인 듯 하기도 하다. 예전의 시대를 과거라는 한 카테고리 안에 싸잡아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과거 속에도 변화란 존재했고 바로 그 과거 속에도 변화를 삼킨 역동성이 존재했다.

우리는 과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모습과 형태들을 여러 가지로 적응시키고 발전시키며 또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따라 다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명제아래 우리나라의 결혼식을 살펴본다. 과거의 결혼식(흔히 말하는 전통결혼식)에서 현대의 결혼식, 혹은 흔히 구식과 반대되는 것으로 신식결혼식으로의 변화를 통해 위에서 말한 명제의 증거를 찾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의 결혼식 사진을 수집하고 그 당사자들과의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신부로 한정하였고 변화를 일상 생활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찾고자 하였음을 미리 밝히며 여기에서 인터뷰 대상자의 지역 차이는 무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말 속에 그들의 결혼식 사진 속에서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는 결혼식 사진과 문헌 자료를 수집, 분류하였고 그 분류기준으로는 결혼식에 이용된 교통수단의 변화로 삼았다. 특히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맞아올 때 사용한 수단으로 분류를 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 자료 속에 나타난 주변 풍습과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어 결혼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그 안에서 변화와 변화 속에서의 지속에 관한 답들을 찾고자 한다.

II. 본론

결혼이란 무엇일까? 결혼은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거의 모든 사람이 한다. 비록 지금은 혼자 살거나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사람도 있으나 여전히 대체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뷰 주내용은 결혼식 날 느낌, 결혼식을 왜 하는가? 결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약혼은 했는가? 약혼을 했으면 왜 하는가? 웨딩드레스 입고 싶지 않았는가? 웨딩드레스 입고 입장할 때 느낌이 어땠는가? 결혼하고 나서 느낌이 어떠하던가? 등등이다.

1. 꽃가마 타고

신부는 족두리에 활옷을 입고 신랑은 사모대관을 입고 혼례를 치렀다. 혼례를 올리는 곳으로는 대개 신부집의 안마당이나 대청 마루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 말에 들어온 주자가례가 혼인의 규범이 되었는데 이 주자가례는 원래 중국에서 도입된 것이어서 우리나라에 맞게 규범을 정하였다. 그중 하나가 조선 숙종 때 이재(李재)가 관혼상제에 관한 제도와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적은 8권 4책으로 된 사례편람이다(국어사전, 두산동아:1998). 그 사례에 따라 의혼(신랑집과 신부집이 서로 혼사를 의논하는 절차), 납채(혼약이 이루어져 신랑집에서 신랑의 사주를 써서 보내고 결혼식 날짜를 청하는 절차), 납폐(혼례식 전날 신부용 혼수와 혼서, 물목을 넣은 혼수함을 보내는 절차), 친영(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를 맞아오는 예)의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실제로 이 절차에 따라 전통혼례가 행해졌다.

친영 절차에서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꽃가마를 탔었는데 혼인 때 신랑, 신부가 주로 이용한 가마를 사인교라고 한다. 가마는 신라 기와에 바퀴 달린 연 비슷한 것이 새겨져 있어 삼국시대 이전에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확실히 가마가

언제부터 있어 왔고 가마가 언제 사라지게 되었는지 문헌상에 잘 나오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85세 드신 어느 할머니의 말씀으로 자신이 19살에 시집갔는데 꽃가마를 탔을 때 기분이 좋았다고 하셨다. 이것으로 보아 가마는 일제시대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인력거가 생기고 그 기능상 편리하여 인력거로 대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할머니에게 결혼은 왜 하는지 라는 대해 질문하자 그 할머니 말씀이 결혼을 왜 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셨고 결혼이란 당연히 아무생각하지 않고 해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다.

2. 인력거 타고

인력거는 1894년 처음으로 일본인에 의해 10대가 수입되어 사용되었다.

초기에는 관리, 중산층, 노약자, 기생 등이 가마를 대신하는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1920년대에는 1,217대(1911년)에서 4,647대로 늘어나는 등 인력거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인력거를 이용할 사람은 오늘날의 콜택시처럼 인력거조합에 전화를 걸어서 불렀으며, 부유층에서는 자가용을 따로 마련하였다. 인력거는 서울의 경우 광복 무렵부터 자취를 감추었으나 일부지방 도시에서는 6.25동란 뒤까지 운행되었다.

※ 1948년 신부

"원삼 족두리 쓰고 결혼했어. 시집갈 때 인력거 타고, 사는 마을은 남산면 상당리 죽산. 옷은 빌렸지. 할아버지네서 다 빌렸어. 그 때에 신식결혼식은 없었어. 신랑은 사모관 쓰고, 약혼식 없었어. 중매로 갔어. 시어머니 선만 보고 허락해서 할아버지를 첫날밤에 처음 보았어. 남남끼리 만나서 평생을 살을랑게 결혼식을 하고, 계약이여. 그 때 심정은 아무것도 모르고 떨리고 요즘 애들은 얼마나 약냐.



선보라고 할 때도 가슴이 쿵쿵쿵, 가슴 뛰고. 결혼한 다음에 좋긴 뭐가 좋아. 황등에서 저녁으로 차소리만 나면 집 생각나고 시집은게로 재양가시로 3일만에 친정 가서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뒤로 친정에 7년만에 갔어. 지금 웨딩드레스 보면 좋고 결혼식에 부케 던지고 보기 좋잖아.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지루하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 예식장 빌리고 .. 일생에 한번하니까 그것도 좋은데 나이가 드니까 옛날식이 점잖고 옛날식으로 다시 했으면 좋겠더라. 할머니 마당에 명석피고 삼피고 그렇게 했어.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안해주고 할아버지만 은가락지, 은반지, 귀지개 1개 받았어. 할머니가 16살에 해방됐고 19살에 시집갔어. 결혼을 해야 이 세상 생겨난 보람이 있지 결혼 안하면 보람이 없어. 자식이라도 낳고 살며 효도도 받고 자식 성장하면 손자손녀 안아보고 그런 재미여. 평생을 혼자 살면 바라볼 것이 없잖아. 사진없었어. 사진기 있는 사람만 사진 찍었어."

3. 트럭 그리고 택시 타고

트럭은 1926년부터 웬만큼 이용되었고, 1950년대는 전쟁시 군용으로 많이 이용되기도 했다. 1964년에 와서야 트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택시가 처음 운행된 것은 1912년이다. 요금은 1시간에 5원이었는데 전화로 불러서 이용하였다고 한다. 이 당시에는 요금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일반 부유층이나 특수직업을 가진 사람만이 탈 수 있었다. 그러나 1957년 택시에 요금표와 이정표를 비치한 후부터 시민교통수단으로서의 위치를 점점 굳혀가기 시작해 60~70년대에는 시민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 1964년 신부

"족두리 쓰고 결혼했어. 낮에 결혼하고 밤에 트럭 타고 시집에 왔어, 남자 쪽에서 트럭은 불렀지 돈

이 없어서 트럭 불렀다니깐. 옛날에도 신식이 있었는데 드물었고 드레스 입고 신식결혼식은 교회에서들 했지. 신식결혼하면 좋았지. 그 때는 구식을 많이 하니깐 했지. 그 당시에는 돌아다니면서 맞사지도 해주고 머리도 해주고 화장도 해주는 미용사가 있었어. 신부측에서 불러서 해주는 것여. 결혼식날 얼떨떨하고 좋은가 어쩐지 모르겠어. 결혼식은 일생 생겨나서 다들 하니깐 하지. 결혼 좋기는 뭐가 좋아. 신혼여행 없었어. 약혼식은 다방에서 맞선보고, 사진 찍었어."

◆ 1973년 신부

"결혼식때 비가 많이 와서 마루에서 했어. 밤새도록 비가 와서 부야 났지, 그래서 잠을 못갔어. 걱정돼서. 그리고 그때는 남자들만 상각(집안 대표)으로 갔었지. 남자 쪽에서 옷을 빌려왔어. 그때만 해도 동네에 혼례복이 준비되어 있어서 신랑이 빌려와서 전통식으로 했지. 신부는 나이론으로 된 얇은 장갑 썼어."

신랑 것도 신부쪽에서 준비했어. 신발은 신고 달아난다고 해주면 안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신발하고 넥타이 해줬어. 다 옛날 그냥 하는 말여. 근데 그 때는 신식으로 많이 했지. 구식결혼은 별루 없었고, 신식이 막 퍼질 때였어. 예식장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깐 예식장은 못갔지 그때는 남자가 비용을 다 부담해야 했으니깐. 사촌동생이 먼저 결혼했는데 하얀 드레스 입고 신식으로 하니깐 좋더라. 나도 그렇게 입고 한번 해보고 싶더라. 왜 좋아 보이긴... 법이 그러니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화장은 미용사를 불러다 했지. 계란으로 맞사지도 하고, 머리도 하고. 시집으로 갈 때 신랑 쪽에서 택시 두 대 불러서 갔지. 지금이니깐 우습지. 그때는 신부는 암전을 떨어야 했어. 각시노릇 할러니 힘들지. 다리가 아파도 암전히 앉아 있어야 했구. 웃지도 못했어. 방에 앉아서 고개도 못들고 수그리고만 있었어. 첫날밤? 구석에 밤새도록 앉아있었지, 무서워

서. 신랑은 신나게 자더라. 이를 저녁을 꼬박 새서 그 다음날 졸려서 혼났다. 결혼!

힘든 것만 기억 난다. 좋은 것은 없고, 시집 따를 러니 무엇이 좋은지 모른다. 법이라서. 그래도 결혼은 가정을 꾸리는데 의미가 있지. 근데 요즘은 웨딩드레스가 간편하지만 원삼 쪽두리 쓰고 하는 게 좋더라. 간편해졌어도 맘이야 옛날하구 지금하고 똑같겠지. 약혼식은 시내식당에서 식구들하고 밥먹고, 반지랑 시계랑 교환했어. 맞선보고 7~8개월 있다가 결혼했어"

◆ 신랑

결혼은 부모가 시켜주니깐 하는 것이다 한다. "부모가 맺어주니깐 어쩔 수 없었지. 그때는 부모가 맺어주면 결혼을 해야 했어. 그때는 살림이 너무 어려워 먹고 사는 일만 걱정했지. 그냥 이때까지 무덤덤하게 살아왔지 뭐."

▶ 이 시기는 전통결혼식이 많이 없어질 때이고 신식결혼식을 많이 했는데 전통결혼식이 약화되어서 신식결혼식에서 행하던 장갑을 신랑신부가 끼어야 구색을 갖춘 것이라고 생각했다.

◆ 과도기 모습

현대결혼식과 과거결혼식이 접목되어진 시기라고 생각된다. 한복을 입고 베일을 한 이런 결혼형태는 기독교의 영향일수도 있겠지만 신식결혼식을 하자니 형편이 안되고, 전통결혼식을 하자니 서운해서 현대와 과거의 결혼식의 특징을 접목시킨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 1979년 칼라사진 등장

우리가 수집한 자료에서는 이시기부터 칼라사진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칼라사진의 등장으로 꽃이나 드레스등의 색깔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

었기 때문에 이쯤부터 화장 드레스등의 외형에 더 많은 신경들을 쓰기 시작함을 알 수 있었다.

◆ 1982년 신부

"예식장에서 결혼했지. 결혼식날 떨렸어. 화장이랑 머리랑은 미용실에서 다했어. 알아서 다 해주더라. 중매로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한달간 몇번 만나고 결혼했어. 시집갈 때 택시 타고 갔어. 신혼여행은 1박했어. 결혼은 여자나 남자나 나이가 차니깐 하지 요즘이나 옛날이나 같니 뭐."

▶ 이 시대에는 결혼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전통결혼식과 현대결혼식의 공존하는 시기이며 또한 자본주의의 영향인 듯 보이는 예식장 미용실 등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대까지만 해도 약혼식은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진이란 결혼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물로서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별개이며, 남녀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혼식 비용에 있어서도 대부분 남자측에서 부담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의 의미란 가정을 이루고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시기이다. 결혼배우자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른들의 결정으로 결혼이 성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4. 자가용 타고

승용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11년경으로 추정된다. 처음에는 왕들이 외국에서 수입한 차들을 이용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전차를 이용하는 시대였다. 그러나 산업발달과 함께 자동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1990년대는 셋집에

wedding Special-2

살아도 자가용은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아졌다.

❖ 1991년 신부

"드레스 입고 예식장에서 결혼했어. 그때는 예식장에서 화장도 해주고, 머리도 해주고, 그랬지. 친구들도 다 그렇게 했어. 그때 신랑친구가 차 가지고 와서 태워가지고 예식장으로 갔어. 대부분 그때는 신랑친구들이 데려다주고들 많이 했지.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 그때만 해도 제주도가 제일인 줄 알았지. 결혼은 왜 하나구? 결혼은 혼자살 수 없는 거니깐 하는거지 혼자 살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더 많이 외롭잖아. 그러니깐 결혼을 하는거야. 결혼식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떨리고 가슴은 쿵쿵쿵쿵 뛰고, 아이고 두 번은 못하겠더라. 웨딩드레스 입으니깐 더 떨리더라구. 입장하는데는 정말 떨려서 죽는줄 알았다니깐. 전통 결혼식 별로 안하고 싶었는데 요즘은 다들 드레스 입고 하잖아. 그러니깐 나도 그냥 드레스 입고 싶어. 난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하고 싶거든. 정해진 남자랑 결혼? 어떻게 얼굴 한번 안보고 결혼을 해. 그 사람이 정상인인지 어디가 모자란 사람인지 내가 확인도 해 봐야 하구. 또 맘이 통한지 알아야 하잖아 그리고 요즘 누가 그렇게 얼굴 한번 안보고 정해진 사람랑 결혼을 하나. 풍습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하니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결혼식 비용 두 집안에서 반반씩했지. 요즘 누가 한 집에서 다 하려구 하나. 대부분 다 반반씩하지."

❖ 1999년 신부

"결혼은 일하기 싫어서 했어. 몇 년동안 일했더니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구. 맨날 남들 결혼하는 것만 찍어주니깐 나도 좀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구. 내가 이쪽에서 일하니깐 아는 사람들도

많구 누가 잘하는 줄도 알구 하니깐 화장은 잘하는 사람 찾아가서 했지. 드레스도 옛날부터 내가 생각 해놓은 스타일이 있어서 알아서 했어. 부케도 예식장이 아니고 야외라서 들꽃분위기 나는 걸루 주문했지.

사진은 내가 일하던 곳에서 했어 난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정작하려고 하니깐 힘들더라구. 이틀동안 찍는데 힘들었다니깐 사진도 내가 원하는 분위기도 말해서 찍었어. 요즘 신부들은 웬만하면 자기들이 드레스랑 화장이랑 다 알아보고 결정하잖아. 그리고 웬만해서 그냥 하라는 대로는 안하잖아 자기들의 주장이 강하지. 결혼식장은 신랑친구가 태우고 갔지. 결혼식할 때 하나도 안떨렸어.

그날 내가 얼마나 많이 웃었냐. 맨날 보는거라서 아마 더 안떨렸을거야. 그리고 이틀동안 사진 찍으면서 웃는 연습했으니깐, 시종일관 웃고만 있었잖아. 그리고 난 신부가 찡그리고 있는 모습이 별로 안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난 열심히 웃었지 뭐. 전통 결혼식 한번쯤은 해보고 싶더라구. 드레스는 너무 형식적이잖아 그러니깐 또다른 의미를 주는데 있어서 전통 혼례복 입고 결혼해도 괜찮을 듯싶어. 그리고 난 예전에도 전통 결혼식 생각해봤어. 얼굴 한번 안본 남자랑 결혼? 난 안해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사람하고 내가 맘이 맞는지, 생각하는게 비슷한지 그런 건 알아야 함께 살지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고 같이 사냐. 결혼의 의미, 결혼하면 전의 나와 결혼 후의 내가 달라지고 결혼이 나의 인생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싶었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게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아직까지는 별로 달라진게 없네. 예전 그대도 살잖아. 결혼하니깐 내 집이 있어서 좋구. 예전보다는 좀 여유롭고 맘이 좀 편하지. 그런데 신랑이 자꾸 날 간섭하니깐 그건 좀 안좋더라. 결혼하기 전에는 내 맘대로 하구 살았잖아 그런데 지금은 신랑이 자꾸 간섭해. 그것만 없으면 참 좋을텐데 말이다.

❖ 2000년 신부

왜 예식장에서 결혼식 안했냐구. 그건 신랑이 자기집에서 하기를 원했구 자기 집에 애착이 많으니깐 그렇게 하자구 했어. 우리는 결혼을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했지 특별하잖아 50분마다 찍어내는 결혼식이 아니구. 남들도 나도 지겨운 결혼식이 아니라 다들 즐겁게 할 수 있었으니깐 더 애착이 가지. 예식장이 아니니깐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지 예식장은 돈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딱 해주잖아. 신랑 신부는 신랑신부 역할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는게 좀 정신이 없었구. 또 야외라서 기상상태 걱정이 엄청 됐잖아 무지하게 추웠지만 비는 안와서 다행이었지 뭐. 결혼식을 저녁때하니깐 어떠냐구. 옛날에도 다 저녁때 했잖아 해가 어

스름하게 지구, 달도 뜨고 별도 뜨고 하니깐 굉장히 분위기 있잖아. 그리고 조명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더 분위기 있게 할 수 있었구. 하객들도 새로운 분위기라서 좋아들 하시구. 나도 남들과는 좀 다르니깐 기억하면 기분이 참 좋지."

▶ 이 시기에는 결혼이 많이 자유로워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결혼이란 사랑이고, 자신의 행복을 먼저 우선시하였으며, 과거에 신랑이나 가족들이 해주던 것들이 돈만 내면 해결되는 예식장에서 대부분 해결이 된다. 또한 사진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자연스러움을 많이 보이고 과거에 남자측이 모두 부담했던 비용은 이제 양가에서 반반씩 부담하는 결혼식의 변화가 보인다.

wedding

III. 결론



결혼식은 과거에도 행해졌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가마에서 인력거로, 트럭으로 다시 택시로, 자가용으로 신부를 운송하는 수단이 변했고 원삼 족두리에서 하얀 웨딩드레스로 결혼예복이 달라졌으며 신부집에서 예식장으로 그 장소가 변했다. 위와 같이 옛날의 결혼식과 지금의 결혼식의 형태는 변화하였는데, 이전에는 결혼식이 관습적으로 행해졌다면 지금은 결혼식을 이벤트로 생각한다. 겉모습 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이나 결혼에 대한 의미 등도 많이 변화하였는데, 예전의 신부들이 무조건 부모님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어른들의 의견에 따랐지만, 요즘 신부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맘에 맞아야만 결혼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결혼의 의미가 누구나 해야 한다는 관념에서 선택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예전의 신부들이나 오늘날의 신부들의 대부분은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느 시대 신부이건 자신들이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동경한다. 전통결혼식을 올렸던 분들은 웨딩드레스를 입는 모습이 부럽고, 현대의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들은 다소곳했던 과거의 전통결혼식을 부러워한다.

(위 글은 인터넷 결혼문화 사이트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 입니다.)

결혼 엿보기

"결혼기념일이네...축하해"

지난 2월 28일... 결혼이라는 또 다른 양식의 문화로 함께 지낸 지 4년이 지남을 우린 서로에게 축하해주었다.
짧은 아침 인사를 뒤로하고 각자의 일터로 가는 길...

'도대체 무엇을 축하한 거지?' 문득 떠오른 생각에 피식 웃어버린다.

함께 축하하던 같이 사는 우리 집 친구도 지금쯤 지하철 창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며 멋지게 웃고 있을지 모르겠다.

바라보기만 해도 아까운 하늘빛, 하루종일 마주 대하고 있어도 아쉬울 봄 햇살, 옷깃을 풀어헤치고 다 받아들이고 좋을 줄여진 바람이...'아! 다시 돌아왔구나!'하는 봄의 생명력에 대한 함성을 내지르게 한다.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해서일까? 무엇보다도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건 결혼소식이다. 뒤늦은 청첩을 돌리며 수줍어하는 친구의 얼굴이, 분주히 선을 보고있다는 초보 노총각 친구의 트렌치 코트가, 약혼 후 사정상 미뤄지는 결혼을 기다리며 한숨 짓는 선배의 입가에 생겨나기 시작한 주름이 종종 비춰지는 것도 해마다 볼 수 있었던 진풍경이었음을 기억한다.

지나버린 결혼에 대한 아쉬움일까...해마다 서로에게 축하를 해대는 우리의 모습에 문득 『결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결혼은 당사자의 성(性)적, 심리적, 경제적인 결합을 뜻하는 주요한 행위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가족을 형성하는 단서가 되며, 나아가서는 종족보존의 중요기능을 가진다. 제3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서약을 하는 의식을 치루고 나서야 비로소 성립되는(물론 다른 형태로 약식이나 혼인신고만으로도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 결혼이라는 제도, 문화를 우리는 성년이 된 후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은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 결혼을 결정해야 할 시기에 직면했을 때다.

누구와 하느냐? 에 대한 고민보다는 과연 결혼이라는 걸 해야만 하는 건가...?에 대한 고민(?)으로 또래 기집애들이 모여 꽤나 많은 양의 맥주를 마셨던 그때..."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니까 하구서는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말을 무슨 주술이라도 되는 양 엄마는 밥상머리에 앉을 때마다 외워대고는 하신 것도 같다.

남녀를 불문하고 한 생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번쯤은 고민하게 되는...결혼.

도대체 결혼이란 무엇일까? 어떠한 형태로 행해지며, 지켜지는 것일까?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사실 아직 멀었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그늘막이 되어주셨는지 어렵풋하게 알아갔고 결혼할 때 즈음엔 별로 오붓이 지내지 못했던 무섭기만 했던 오빠가 내 보호자가 되어 미래의 내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내대신 다짐해주었다.

결혼이란 의식으로 또 다른 소문화를 이끌어가게 된 우리...남편과 나...

이제는 어엿하게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려는 그 친구에게 지난 6년간 연애키간의 장난기와 4년간의 신혼 생활에서의 혼란은 보이지 않는다.

나 역시 예전에 엄마가 외웠던 주술 같았던 말을 고쳐가며 '결혼은 해도 후회, 안해도 후회, 그러니깐 안하구 화려한 싱글이 낫지...' 따위의 푸념은 하지 않는다.

아마 연애 시절의 열정보다, 신혼살림의 달콤함보다 결코 견줄 수 없는 믿음과 신뢰 - 그 결실의 산물로 내 안에서 편히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아이로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지켜져야 할 또 다른 '약속'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광명문화의 집 팀장 | 오은영



2002년 광명에 바라는 문화

우선 청소년들의 해맑은 모습들이 광명의 문화를 대변해주는 것 같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2002년 광명에 바라는 문화에 관해 간단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약간은 추상적이긴 하지만 청소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엿볼 수 있었다.

2002년 광명은 교통이 편리하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놀이시설이 많이 만들어져 마음껏 뛰어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광명서초 5학년 김지원

청소년문화의집처럼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환경과 공간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학교 운동장이나 옥상 같은 곳에 수영장을 설치하여 멀리까지 가서 수영하지 않고 가까이서 수영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광명서초 5학년 조세진

중고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요구사항도 많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학교의 두발자유, 학기가 시작되었는데도 마무리되지 않은 재건축물이 하루빨리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면 한다. 또한 비평준화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시험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고등학교 평준화를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고 교복을 없애주어 청소년들의 자유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광명문화가 되기를 바란다.

- 광남중학교 3학년 김광겸

봉사활동 시간을 줄여주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봉사 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라며 자유롭게, 마음껏 놀 수 있는 청소년 전용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져 자유로운 청소년문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광남중학교 3학년 안병석

광명시에 청소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더 생겨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모습을 간직한 광명문화가 되길 2002년도에 바란다.

- 광남중학교 3학년 박세영

운동장 이외에 운동할 수 있는 유원지, 공원들이 많이 세워져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광명이 되길 바라며 청소년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발언대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광명시가 청소년들의 생각을 자주 파악하여 반영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 광남중학교 3학년 김해준





성인들은 청소년에 비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견해를 보여 주셨다.

어린이를 위한 문화공간, 장애인 특수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 철산3동 김향순

장애인을 위한 공간, 문화프로그램. - 광명3동 박미영

광명인을 위한 문화공간. - 광명5동 허옥선

시민을 위하여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 광명4동 박은아

평생학습공부를 1인 1가지씩 할 수 있게 다양한 교육과목을 증설 했으면 좋겠다. - 광명4동 강숙

저렴한 탁아시설, 어린이 방 운영을 요구 - 광명4동 김명숙

다른동의 문화강좌는 시에서 보조가 되어 저렴하게 이용하는데 광명문화의집은 보조가 되질 않아

활성화가 어려운 것 같다. - 광명5동 이강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것들을 광명문화원에서도 이용하면 좋겠다. - 광명5동 손영란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철산동 안미옥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편성하였으면 합니다. - 철산동 김윤자

광명동에도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는 스포츠 센터를 설립했으면 좋겠다. - 광명5동 김기순

광명동에 자전거, 배드민턴 롤러브레이드를 할 수 있는 공원 조성. - 광명5동 고미정, 광명6동 김성자

공연이나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과후 삶이 살아있는 체험학습이 필요합니다. - 철산3동 박정자

정리 · 편집팀

문화를 보는 눈 - 음악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닌 인간 사회의 학습에 의한 모든 것의 총칭을 가리키는 말로 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 결국 인간의 삶 자체가 문화라는 것이다 | 사회적인 의미의 의식주(衣食住)에서부터 노는 것에 이르기까지 계층, 지역, 장르에 따라 문화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이해한다 | 이는 문화의 다양성인 동시에 복잡성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늘어난 문화에 대한 관심은 그 실체를 명시할 수는 없어도 감성적으로라도 느낄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문화라는 단어에, 현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의 반증이라 생각해도 될 것이다 | 언론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가 접하는 이 문화라는 보이지 않는 유령은 과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성장의 목표에서 최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개념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정서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는 돈, 시간 등의 물리적 소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음악(콘서트), 연극이 주도하고 있는 무대극과 영화 중심의 문화적 체험이 국민소득 만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여유와 함께 그 중요성이 대중적 소비 현상과는 별개로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뮤지컬이 있다 | 최고가 15만원짜리의 이 공연은 3월 100회 공연을 이어가는데 매진이라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 가격이 싼 좌석부터 팔리는 통례를 생각할 때 의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대중적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유명 대작이라는 작품의 특성에 근거할 수 있겠지만 이외에도 좋은 작품을 찾아 향유하려는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가 이를 가능케 한다고 볼 수 있겠다 | 소위 삶의 질을 이야기하고 건강한 눈과 감성을 이야기한다 | 더 이상 부자들의 살찐 배를 볼 수 없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소식으로 장수를 꿈꾼다 | 게다가 그들의 건강한 삶의 중요한 부분을 문화적 소비로 채워나가고 있다 | 중요한 것은 우선 순위를 가리는 데 문화는 그 대상에서 제외됨을 사회가 깨달아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는 이윤창출이 그 최대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최근 투자라는 이름하에 문화적 행사들을 자사 이름으로 유치하고 있다 | 전에도 협찬 또는 후원 등의 방법

으로 비슷한 일을 하기는 했으나 이제 기업이 직접 나서서 보다 적극적인 문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매달 진행하고 있는 연주회 프로그램이 있다 | 직접적인 이득이 아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 하는 것을 통해 자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다 | 정부의 문화 정책도 그렇다 | 경쟁력이 떨어지는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을 비롯해 사랑티켓이라는 티켓복지개념을 도입해 저렴한 가격에 연극, 연주회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지역문화는 어떠한가 | 각 시에는 문화 예산이 책정되어 저가나 무료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년 유치하도록 하고 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음악 얘기를 잠깐 해보자 | 다양한 문화 현상들 중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장르는 무엇보다 음악이라고 보여진다 | 제레가요, 노동요와 같은 기능적인 음악에서부터 여흥을 통해 정서적 해소를 가능케 했던 음악들까지 지금의 대중음악을 비롯해 클래식, 전통음악 등 인류의 탄생과 그 역사를 같이 했던 음악은 창작의 내용을 물론이고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질 높은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최근에는 듣는 음악으로 안주하지 않고 직접 연주장으로 찾아가 연주자와 함께 호흡하며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현장감을 체험함으로써 좀더 적극적인 향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 개인의 사적인 취향이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장르에 관계없는 음악적 체험은 정서적으로 풍부한 감성을 키워주고 다양한 문화를 보는 눈을 통해 사회적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인드를 길러줄 수 있다 | 물론 수많은 문화관련 프로그램들 중에서 좋은 문화 콘텐츠를 걸러 내는 것도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쉽게 돈 있는 놈들의 잔치로 치부해 버리기도 한다 | 그러나 문화적 체험의 이유는 밥을 먹음으로써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과 같다 | 즉, 좋은 음악을 듣고 질높은 공연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밥상을 차리기 위한 그것과 같다는 말일 것이다.



희망이 있는곳

뽀구뽀구

제법 따뜻해진 날씨와 오후의 나른함이 나를 감싸는 시각, 갑작스레 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하게된 나의 발걸음은 뭉가에 쫓기듯 어수선하기 그지없다. 보건소 옆 노인요양센터는 새로 지은 건물답게 깨끗함과 편리함을 함께 갖추고 있었다. 머리미용 봉사 동아리인 "뽀구뽀구"와의 만남은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 풍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점심 아직 안했으면 같이 하지?" 동아리의 맞언니뻘인 수경심씨의 인심 좋은 말이다. 점심 식사시간동안은 의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므로 점심은 가볍게 거절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된 동기부터 슬쩍 물어보게 되었다. 처음엔 동기라는 말에 멋적어 하는 회원들을 바라보며 팬스레 말을 꺼냈나 싶었지만, 걱정도 잠시, 회원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다 말고 동아리 이끄미인 수경심씨를 시작으로하여 이야기가 시작된다.

"주위에 나보다 힘든 이웃을 도와야지 하는 생각은 항상 하면서도 1년에 한두번 정도밖에 손이 못미치게 되더라구, 정말 힘들게 사는 이들에게 내가 진정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게 뭘가를 찾다보니, 머리미용을 생각하게 됐지, 기회가 마침 닿아 여성회관에서 미용을 배우면서 봉사활동을 찾게되었고, 이렇게 동아리까지 결성할 생각을 하게됐지 뭐야!,"

근데, 미용기술은 내가 제일 쩜병이구, 저사람이 제일 잘해~, 저이 없으면 우린 안되지!!"라며 정정남씨에게 바통을 넘긴다. 그 때까지 조용히 얘기만 듣고 있던 정정남씨가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로 말머리를 돌린다.

"머리미용은 젊었을 때부터 배워서 미용실을 경영하기도 했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 한참 동안 일을 쉬게되었죠, 그러다 여성회관에서 머리미용을 다시 배우면서, 아마 그때부터 봉사활동도 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거 같아요, 그 때 여성회관에서 이 사람(수경심)을 소개시켜 주더라구요."

"저는 기본적으로 봉사를 생각하며 머리미용을 배우진 않았어요, 필요에 의해 배웠는데, 언니들을 만나 이곳을 알게 됐죠,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요!" 수줍은 웃음답게 가장 나아가 어린 양은숙 언니의 쑥스런 대답이다.



수경심씨는 그 동안의 봉사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이라며 장애인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을 내게 들려 주었다. 그곳 장애인들 중에는 중증 장애로 인하여 몸을 움직이는 것이 너무도 부자연스런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리는가하면, 밥을 해먹을 수도 없어서 매끼를 컵라면으로 때우고, 목욕은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 이왕 도와주러 온 거 목욕까지 시켜주고 가자'는 맘에 목욕을 시키다 보면, 어느새 제 손바닥에는 마치 동물성 기름이 응고된 것처럼 두텁게 묻어나서, 비누로 몇 번을 닦아내어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다. 봉사를 마치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사람들의 이상한 눈치에 주위를 돌아보면 모두 자신을 피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고 한다. 왜 그토록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해나가는지 의아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터라, 나는 '그러면, 봉사활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정도로 싫지 않나요?'라고 묻자, 대답은 오히려 '아니요, 내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고, 그만큼 내가 건강할 때 더 열심히 그들을 돕고 그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는 말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이다. 괜한 질문을 해서 내 얼굴만 발갱게 달아오르고만 결과가 되었다.

식사를 끝마친 후, 회원들은 남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머리를 잘라주어야 한다며, 지하로 내려갔다. 나 역시 노인들과 그들이 어울리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함께 지하로 나갔다. 머리를 자르기 위해 질서정연하게 앉아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 순서가 되면 머리 주문도 다양하다. 뒤는 어떻게 해달라 옆은 어떻게 해달라 등등, 주문도 가지각색이다. 머리를 자르는 것보다 그분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수경심씨는 그녀의 말답게 시종일관 노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말을 걸어보며 머리를 자르기에 여념이 없다.

할머니들 중 유독 눈에 띄는 한 할머니가 있다. 그 할머니만이 예쁜 색깔로 머리를 염색한 상태다. 뒷머리를 짧게 깎아달라는 할머니의 주문에 수경심씨는 난감한 눈치다. 영문을 몰라 지켜보고 있던 나는 머리가 잘려진 후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뒷머리를 자르고 나니 다른 할머니들과 마찬가지로 흰머리가 이미 머리 전체를 덮어서, 머리 윗부분은 예쁜 적갈색에, 뒷머리는 온통 흰색 머리털로 색깔의 배치가 마치 누군가 선을 그어 놓은 듯이, 머리가 위아래로 양분된 상태다. 본래 요양센터에 처음 맡겨진 노인들은 대부분이 자식들의 손에 의해 정성스럽게 머리 염색을 한 상태로 들어온다고 한다. 그것은 할머니가 요양센터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않았음을 보여주는 잣대인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염색한 머리를 하고 어딘가를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는 나이가 아님을 서글프게도 보여준다.

처음과 같이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무심코 바라본 차장 밖 풍경은 바로 조금 전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양, 거리에는 가득찬 주택단지와 아파트들로 갑갑증을 느끼게 한다. 세상의 각박한 틀 속에서, 세상이 혹 나를 버리진 않을까 생각하는지, 아님 마치 세상이 바라기라도 해서 남들과 똑같은 목표를 향해, 또는 더 나아지고 싶은 욕망으로 나아가는 듯, 우리는 오늘도 아슬아슬하게 좁은 문만을 다들 지나가려 하고 있다. 그것 외에는 길이 없는 듯이... 바로 지금, 비록 나도 버스에서 내리면 언제 그랬냐 싶게 현실 속으로 발을 깊숙히 들여놓겠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싹이 있어 나는 행복하다.

광명 문화의집 | 신란희





충현 서원의 등산모자

2002년 3월 22일 모래 바람이 많이부는 오후에 찾아간 곳은 1년 내내 한창중인 조경 보수 작업현장, 매우 분주한 모습이 마치 인생이 또한 분주한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다. 마르신 체구에 등산모를 눌러쓰신 이목구비가 뚜렷하신 어르신....

이 분이 충현서원의 총관리 책임자이신 이 홍수 상무님이셨다. 구리빛 피부와 이마의 주름살이 마치 세월의 힘을 느끼게 한다. 작업중이신 상무님에게 "인터뷰 좀" 이라는 말이 쉽사리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막상 용기를 내어 말씀 드렸더니 "난 그런거 못해요"라면서 거절하시니.... 매우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후, 장작 20분 정도를 쫓아다니며 매달리니 웃으시면서 "좋다"고 흔쾌히 대답하셨다. 이목구비가 너무 또렷한 분이시라, 첫인상이 조금 무서웠는데, 승낙하시는 미소를 보면서 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충현 서원에 들어오신지 6년.... 그리 많지 않은 인원으로 이 넓은 곳을 땀으로 일궈나가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만 66세의 연세로써 조경 보수 작업이 그리 만만치는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말이다. 어쨌든 상무님의 편안한 어조와 인상에 힘입어 첫 질문으로 "어떻게 이곳 충현 서원지에 들어오셨는지요?" 라고 여쭙다.

상무님 왈 "먹고 살려고 들어왔지! 하하하" 라는 말씀에 뒤로 넘어 질뻔했다. 내심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른 분들이라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인터뷰인데! 맘 속으로나마 잠깐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하지만 뒤돌아서 생각하니 내가 아니 지식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잠깐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중략하고 상무님은 충현 서원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았다... 여러 가지 질문중 이원의 선생에 대해 주관적인 생각을 여쭙 뵈더니 선생님의 생각과 사상을 매우 존경하며, 특히 검소한 삶에 대해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상무님 역시도 그러한 정신을 받아 소박한 삶을 살고 있을거라 의심치 않는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리 방문하지 않아 그나마 편찮다고 하시는데,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손볼 것이 더더욱 많아 진다며 인원이 라도 조금만 더 지원해줬으면 하는 말씀에 괜히 마음이 조금 안쓰럽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곳, 그냥 겉모습만 보고 가는 사람들, 산에서 아무 꺼리낌없이 공공의 적이 되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동안에도 상무님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점점 늘어 가시지만 하는 것 같다. 또한 상무님이 특히 강조 하여 말씀 하시기를 "제발 좀 이원의 선생님 묘에서 미끄러움을 타지 말아주시기를" 하며 당부 하셨다...

앞으로 충현 서원지가 공원이 될지 안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충현서원지가 공원으로 되어서 점점 늘어만가는 우리의 오염된 삶을 깨끗이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그속에서 상무님의 굳은 살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좀더 나아진 방문객과 "수고하세요"의 한마디 말에, 가슴속의 굳은 살은 조금 없어지리라 믿는다. 처음 하는 인터뷰라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며 상무님의 사진을 찍었다.

너무나 어색해 하시지만 상무님의 나름대로의 작은 미소가 오늘 하루의 피곤함을 덜하게 해주셨다. 사진을 찍은후에 바로 뒤돌아서서 일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항상 웃으시면서 사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직도 바람이 많이 불지만 말이다.....



문화재와 문화재 보호

한국박물관교육연구회장 | 손기인



우리네 사람들은 삶에 있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으로 삶의 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20세기에 들어와 우리는 다른나라의 장기적인 침탈과 6.25사변(한국전쟁)등으로 삶의 질을 논하기에 앞서 생존의 문제가 더 가까이 있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국민개인소득(GNP)이 8,000달러를 넘어 10,000달러로 올라와 즈음에야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 하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 볼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이때부터 우리문화 문화재에 관심을 갖는 분이 많아지게 되어 유흥준의 "나의 문화유적답사기"란 책이 순식간에 일백만권이 팔리는 사건(?)이 일어 났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긴 역사의 시간동안 수많은 문화가 존재했을 것이고 그중에서 일부는 없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는 변화과정을 거쳐 가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문화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문화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문화재란 과연 무엇인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는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기념물(記念物), 민속자료(民俗資料)로 나뉘지며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로 구분된다.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것은 유형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예를 들면 신라 금관, 다보탑, 석가탑, 고려자기, 조선백자, 신윤복의 풍속화 등은 유형문화재이며, 두루미, 황새, 청둥오리, 정이품송 등은 천연기념물이다.

요즈음 들어 관심을 많이 끄는 판소리, 궁궐 사찰 등 전통 목조건축을 짓는 기술, 탈춤을 추는 산대놀이 등이 무형문화재이며 이 기능을 보유한 분들을 "중요무형문화재 00호 기능보유자"라고 부르며 "인간문화재"는 공식 명칭이 아니다.

또 유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은 보물로 지정하며 그 중에서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하며 이를 국가지정문화재라 한다.

서울의 숭례문(숙청 남대문)은 국보 제 1호인데 제 1호의 뜻은 국보중 최고라는 뜻은 아니며 지정할 때 붙여진 순번에 불과하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신문의 문화기사란에서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세계문화유산이란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심사를 거쳐 지정한 것으로 세계 122개 국가에 690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유산 529건 자연유산 138건 복합유산 2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창덕궁, 화성,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인돌 유적(고창, 화순, 강화) 등 7건이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기록유산으로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제요절, 승정원일기, 등 4건이 인정받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자연유산은 없다. 설악산지구를 자연유산으로 지정받으려 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유네스코 본부에 가서 지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므로써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광명에는 오리 이원의 선생에 대한 문화재가 많이 있고 가학동에는 지석묘(고인돌)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석묘 오만여개의 과반수를 넘는 이만육천여개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래도 지석묘를 자주 볼수 있어서인지, 그것의 중요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 하나 하나가 이천 년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중요한 문화재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를 비롯한 문화행정에 국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1997년부터 "문화재행정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겨레답사문화연합에서는 문화재청과 함께 궁궐 지킴이들을 양성하여 문화재 특히 궁궐에 대한 설명 업무와 올바른 보호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우수자연상태지역 우수역사문화지역을 보존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인류의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인정한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수 많은 자랑스러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재에 대하여 그 원형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후손에게 전해줄 책임과 의무는 있지만 그것을 훼손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후손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할 좋은 교재중의 하나가 문화재라는 것에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는 문화재를 훼손한 자들에게는 그 이전보다 벌금을 많게는 10배 인상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벽제를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처벌 강도가 아주 강화되었다.

문화재 보호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금전적 투자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규모이고 전문적인 분야는 국가와 해당전문가의 몫이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쉽게할 수 있는 분야에서 문화재 보호 활동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문화재가 원래의 모습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문화재 환경이 파괴되는 일이 없는가? 문화재가 파괴 도는 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는가? 등 조금만 주위 깊게 보면 파악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참여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문화재와 친해질 수 있는 문화재 그려보기, 문화재 조사하기, 문화책 지도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 문화원, 학교등 교육기관의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끝으로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존 두이의 글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맺는다.

"야만인이 야만인이며 문명인이 문명인인 것은 그의 태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참여하고 있는 문화에 의한 것이다." - 경험으로서의 예술 - 에서

한국의 축제

청도 소싸움축제



청도에서 소싸움축제는 무형문화재 1호(?)다. 안동에 하회탈춤이 있다면 청도에는 소싸움축제가 있다.

소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문헌상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땅에 농경문화가 정착한 시대에 목동들이 망중환을 즐기기 위한 즉흥적인 놀이로 시작하여 차차 그 규모가 확산되어 부락단위 또는 씨족단위로 번져 서로의 명예를 걸고 가세(家勢) 또는 족세(族勢)과시의 장으로 이용되었다.

주로 추석 놀이로서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민족의 협동단합을 제압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시켰으나 그 명맥을 조심스레 이어온 터에 마침내 광복을 맞아 부활되어 그 맥을 이어오다가 70년대 중반부터 고유의 민속놀이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지난 90년부터 영남 소싸움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3.1절 기념행사로 자계서원 앞 넓은 서원천변에서 개최되는 소싸움이 해마다 규모가 커지게 되어 이제는 우리 나라 최대 규모의 소싸움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소싸움은 소가 한곳에 모여 풀을 뜯다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겨루게 되고, 소의 주인도 자기네 소가 이기도록 응원하던 것이 발전하여 사람이 보고 즐기는 소싸움으로 변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소의 크고 작음에 구애받지 않고 힘과 기술로 한판 승부를 겨루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무게에 따라 갑,을,병으로 나누어 체급별로 경기를 하고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빨치기, 머리치기, 배치기, 목치기, 옆치기, 뽕걸어 당기기 등 여러가지 재간을 구사하며 힘을 겨루어 승자를 가리게 된다.

98년 9회 대회때까지는 전국민속투우대회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소싸움대회로 자리매김 하였다.

1999년에는 문화관광부 지정 '한국의 10대 지역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인정 받았다.

이에 청도군과 청도투우협회의 노력과 한발 앞선 실천으로, 일본투우 3두를 초청하여, 한·일친선투우대회, 주한미군 로데오경기 유치등 다양한 프로그램 유치로 국제적 행사로의 발돋움을 시작했으며, 행사기간중 일본/미국등 외국인 관람객들이 상당부분 참여하여, 5일간 21만여명의 내외 관람객들이 청도소싸움축제를 다녀갔다.

2002년 청도 소싸움축제에는 58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127억여원의 지역생산 파급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한·일 소싸움전과 한우로데오경기 등 국제적인 행사의 지속적인 개최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문화관광부가 4년 연속 10대 축제로 선정하는데다 외국 언론사들로부터도 한국을 대표하는 독특한 문화로 인식돼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잡아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 행사소개

천년을 이어온 전통 소싸움

전국 싸움소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청도는 전국최대 규모의 소싸움 대회의 개최지로 오랜 전통에 걸맞는 민속행사로 소싸움대회를 개최해왔다. '98년 대회에는 132마리의 싸움 소가 출전해 4일간의 대회기간 중 관람객 15만명이 찾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박진감 넘치는 한판승부 경기장에 들어선 두 마리의 싸움소는 주인과 팀웍을 이뤄 상대편 소를 공격한다.

1톤에 가까운 거대한 황소들은 날렵한 몸놀림과 노련한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고, 힘이 부족한 소가 머리를 돌려 깨끗이 패배를 시인하는 단판 승부의 경기이다.

'99문화관광축제로 지정 청도 소싸움 축제는 오랜 역사의 전통을 인정받아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99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에 상설투우장이 완공되면 스페인

의 투우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도약하게 된다.

❖ 행사안내

1. 한일친선 소싸움

일본 소싸움 경기대회의 우승 소와 한국 소싸움 대회 챔피언의 친선 경기로, 본선 시합 기간 중 자존심을 건 대결이 펼쳐진다.

2. 한우로데오 경기

전통 한우를 타고 펼치는 신나는 로데오 경기로 주한 미국 카우보이협회 경기팀의 다이내믹한 경기와 일반인의 시연이 함께 벌어진다.

3. 소타기

천성이 순해 싸움소가 되지 못한 청도의 명물, 순성호씨의 소 '순덕이'를 타보는 황소타기 체험행사를 비롯해 한우로데오 경기에도 일반인이 참가할 수 있으며, 청도 소싸움 축제의 공식 캐릭터와 기념촬영이 마련된다.

4. 청도 한우요리 페스티벌

용암온천랜드의 테마카페에서 공개방송과 함께 진행되며 다양한 한우요리 시식과 전문요리사의 한우 요리쇼가 함께 펼쳐진다.

5. 소싸움 사진촬영대회

축제기간 중 소싸움 경기 및 소와 관련된 소재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입상작은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시상한다.

6. 차산농악 놀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4호인 차산농악놀이는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춤과 흥겨운 연주로 축제마당의 흥을 돋운다.

7. 농경문화 전시회

각남초등학교의 농기구 박물관과 청도역내 전시장에서 청도지역 농경생활을 보여주는 각종 농기구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을 공개한다.

8. 특산물 판매코너

한재 미나리, 아이스 홍시, 감식초, 청도 한우고기 등 청도가 자랑하는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 소싸움의 경기규칙

1. 출전소는 체급별로 추첨하여 대결한다.

(갑종 : 730kg 이상, 을종 : 730kg 미만, 병종 : 630kg 미만)

2. 1:1 토너먼트 식으로 대결하며 단판승제로 승부한다.

3. 공격 중 먼저 머리를 돌려 달아나면 패한다.

4. 경기에는 시간제한이 없으며 한 마리가 패할 때 까지 계속 진행한다.

❖ 싸움소의 탄생

전문 훈련사의 우주들은 황소 중에서 싸움소가 될만한 소를 골라 집중 훈련시킨다.

송아지가 자라 소싸움에 참가할 정도가 되려면 보통 2살은 되어야 하며, 최고의 체급인 갑종경기에 참가할 때까지 보통 5년간 싸움소로 출전한다.

싸움소들은 농사일 대신 체력단련과 기술연마에만 집중하게 되고 주인과 특별한 유대를 쌓으면서 경기에 참여해 기량을 선보이게 된다.

❖ 싸움소의 조건

- 키가크고 동체가 길면서 발이 튼튼하며,

골격이 조화를 이루는 소

- 소싸움의 가장 큰 무기인 뿔이 좌우로 뻗어있고,

사이가 좁은 소

- 눈과 귀가 작고 앞다리가 짧으며 목덜미가 잘 발달된 소

- 특유의 끈기와 근성이 있고, 동작이 민첩한 소

❖ 싸움소의 훈련과정

- 체력보강

싸움소는 보리쌀, 콩, 밀 등을 볶단과 함께 끓인 여물을 주로 먹고, 가끔 들깨를 섞어 먹기도 한다.

경기가 임박하면 특별히 십전대보탕이나 미꾸라지와 뱀 등을 보양식으로 먹는데, 보통 싸움 소 한 마리를 먹는데에는 한달 평균 4~5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 체력단련 및 기술연마

싸움소의 체력단련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산을 달려 오르는 산악달리기를 기본으로 뒷다리 힘을 기르기 위해 타이어를 끌고 달리기도 하며, 뿔을 이용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산에 올라 뿔치기, 뿔걸이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청소년과 사이버 문화

2월 17일 미국의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남자 1,500m 결승전에서 김동성 선수는 1위로 들어왔지만 오노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실격 판정 받았다. 심판의 이해할 수 없는 오심에 이는 미국의 편파적인 자국선수 영웅 만들기와 김동성 선수의 비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런데 마땅히 항의할 곳과 방법을 찾지 못해 안으로 분을 삭히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강력하고 활발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미국올림픽조직위원회(USOC)에 항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수 십만명이 참여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편파 방송을 한 미국NBC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다. 그리고 CNN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였다. 국내의 각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김 선수의 실격 판정에 항의하는 글이 수 없이 올랐고, 안티 사이트와 김동성을 격려하는 팬 사이트가 수 백여개 만들어졌다. 경기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방송자료를 서로에게 제공하고 사건 관련 자료들이 입수되는대로 공유하였다. 항의의 한 방법으로 패러디 기법도 동원되었다. 유명 영화 포스터에 쇼트트랙 반칙 사건을 패러디 한 그래픽 합성 작품을 만들고, 인기 가요의 가사를 바꾸어 노래로 만들었다. 격려와 항의를 담은 다양한 플래시 애니메이션도 제작해 유포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청소년 문화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동성 선수의 실격패로 비롯되어 인터넷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항의 활동은, 청소년들의 사이버 문화와 역량을 가늠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문화의 소비자에 불과했던 과거의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주체적인 문화의 생산자로 당당히 나서고 있다.

사이버 문화의 생산자로서 청소년들의 모습은 '적극적인 생산자', '전달자', '관망자'로 나타난다. '적극적인 생산자'로서 청소년들은 직접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류의 장을 만든다. 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재치 있는 그래픽 합성 작품과 노래를 만든다. 그리고 게시판에 자신의 글을 올리고, 타인이 올린 글에 동조하거나, 반박하며 논쟁을 이끌어 간다. 협동이 필요한 사이버 시위에도 예정된 시간에 가담해 승리를 맛보기도 한다. '전달자'로서 청소년은 공감하는 글이나 긴급한 정보를 복사해 평소에 자신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올린다. 그리고 다른 네티즌들의 동조를 촉구한다. 전달자로서의 청소년의 행동은 불특정 다수에게 소식을 알려 기하급수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관망자'이다. 정보에 공감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게시물을 읽으며 접속자수를 늘리는 일도 정보에 대한 네티즌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의 불의에 대응하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문화는 목적의 달성 여부를 떠나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문화는 인식 부족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사례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중독증, 왜곡된 채팅 문화, 무분별한 음란물 접촉,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초고속 인터넷이 급격히 보급되면서 친구들과 밖에 나가 노는 청소년들이 즐기 시작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빠져드는 이유는 몰입하게 만드는 사이버 문화의 특징에 있다. 인터넷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은 '글'이다. 그런데 글은 '말'과는 달리 표현되며 다듬어져 문학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보이지 않는 상대방은 부담이 없고 근사하게 포장된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정보를 교환할 때 상대방을 쉽게 믿게 되고, 친근감을 더 느끼며, 마음을 열게 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며 무한한 능력의 향상을 경험한다. 인터넷으로 먼 곳에 있는 도시의 전경을 보기도 하고 소극적인 성격이 적극적으로 바뀌기도 한다. 심지어는 나이와 성별을 바꾸는 변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오락기로, 영화관으로, 오디오로, TV로, 만화방으로, 도서관으로, 사람을 사귀는 만남의 공간으로 다가오는 재미가 가득한 인터넷은 청소년들을 정신없이 몰입하게 하는 강력한 중독의 특징이 있다.

유행하는 게임을 모르면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 정도로 청소년들의 사이버문화의 중심은 '게임'이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며
무한한 능력의 향상을 경험한다.
인터넷으로 먼 곳에 있는 도시의 전경을
보기도 하고 소극적인 성격이
적극적으로 바뀌기도 한다.
심지어는 나이와 성별을 바꾸는
변신을 하기도 한다.

게임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목적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두뇌 계발에 도움을 주며, 인터넷을 친근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던 게임이 이제는 최대의 골치 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임은 사람과 사람이 겨루는 네트워크 게임으로 컴퓨터와 사람이 겨루는 과거의 게임과는 크게 다른 특징이 있다. 게임을 할 때마다 상대가 바뀌므로 무한전술이 펼쳐져 게임의 끝을 보기가 어렵고, 어느 순간이 되면 게임을 하는 청소년 자신보다 게임속의 아바타가 더 중요해지는 가치의 전도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게임 속 아바타의 신분상승을 위해 사이버 머니를 벌고, 아이템을 구하기 위해 장시간 게임에 매달리게 된다. 게임중독은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문제며 상상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한다. 밤을 세워 게임을 하고, 식사를 거르고, 게임에 젖을 때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찾아 분풀이를 하거나, 아이템을 돈을 주고 사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게임중독이 심해 가출하고 학교를 자퇴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게임문화는 전투를 소재로 한 네트워크 게임으로 편중되어 있고, 관련 업계가 방관하고 있어, 다양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의 정착과 중독증 예방에 대한 정보를 주는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다.

청소년들이 게임 다음으로 열광하는 것이 '채팅'이다. 채팅이 매력적인 이유는 심심하거나 괴로울 때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고, 이성 친구를 쉽게 만날 수 있으며, 야한 이야기로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팅은 단순히 글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화상채팅으로 발전하였다. 채팅으로 다양한 각자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장점이지만 살인, 인신매매,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안전한 채팅을 위해서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하며 특히 번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이라면 친구의 소개나 호기심에 혹은 실수로 접하는 것이 음란물이다. 음란물의 본질은 '상품'이고 판매를 위해 변태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만들어 낸다. 음란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 관계를 쉽게 생각하고 사랑을 육체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성 의식'의 변화이다. 이미 많은 청소년들의 음란물을 모방한 성추행과 성적 일탈을 저지르고 있어, 과장된 음란물에 속지 않기 위한 바른 성교육과 더불어 음란물 접촉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1년 검거된 사이버 범죄자 24455명중 10대 청소년이 44%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사이버 범죄는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고, 적은 금액의 사기나 사이버 명예 훼손 그리고 저작권 위반 사례를 보면 청소년들이 광범위하게 범죄에 손을 대고 있다.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의 자신의 행동이 범죄인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뜻밖에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한 정보가 시급히 공유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터넷에서 사이버문화의 생산자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폭탄사이트를 운영했던 중학생이 '사이트에 올린 정보를 보고 사람들이 실제로 폭탄을 만들어 폭발할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듯이 문화 생산자로서의 역량은 조금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사이버 문화의 생산자로서 유익하고 소중한 경험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자신의 성공에 발판이 되도록 인터넷의 장점과 가능성 그리고 단점을 바르게 알려주어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어기준(魚起準) 소장

✦ 프로필

- 1966년, 출생.
- 2000년, 활동 영역을 인터넷 중독·사이버범죄 등 정보화 역기능 분야로 확대하고 피해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화 역기능 원인이 문화 지체 현상에 있음을 파악하고 인터넷 문화 이해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 활동의 주력으로 추진중입니다.

1. 경력

- (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자율정화 촉진 자문회의 자문 위원(2001년~)
- (현) 내외경제신문 사이버 건전 문화 캠페인 자문 위원(2001년~)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음란물 기준 위원

2. 저서, 논문

-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을 위한 교육 방법론 연구(2001)
- 청소년의 인터넷 엽기문화 이해와 대책(2001)

재미있는 유머시리즈

-문화저널편집부-



술주정의 인성파악~ 당신은?? --;;

1. 심봉사 눈뜨는형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주로 술에 취하면..... 숨겨져 있던 끼가 발산되는 형이다. 갑자기 탁자위에 올라가서 춤을 춘다든가, 헤드뱅잉~~~*^^*

또는 상상도 못한 "람바다"같은 노렐 부르면서 흐느적 거리기두 한다. 보조를 맞춰주다가는 혼사같이 막힐 수도 있는 무서운 경우다. 기성세대들은 넥타이를 이마에 묶거나 넥타이로 노를 젓기도 한다.-_-;

2. 상가집 아르바이트형

이 사람들은 술만 먹으면 막 운다. 우는 이유는 아무도 잘 모른다.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고도 하고..... 심지어 자기가 죽기도 한다. 이유가 있어 운다기 보다 이유를 만들어서 운다.

3. 숙취성 혼절형

술만 먹으면 자는 사람들이 있다. 주로 술자리에서 자는 형과 술집 주변에서 자는 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TYPE은 집에 가야 잠에서 깨기 때문에.....

실수로 뒷 처리를 맡았다가는 땀을 바가지로 흘려야 한다.

4. 방랑시인 김삿갓 형

술자리에선 잘 헤어졌다가도 답날 연락받으면 밖에서 주로 잤다고 고백하는 형이다. 택시를 태워 보내도 중간에 내리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주로 지하철 계단.화장실.시내 공원.주차장 등에서 발견 되며....

특이한 경우.국회의사당이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형의 특징은 아무대서나 잠은 잘지언정 언제나 웃옷과 신발은 반드시 잘 개놓고 자는 경우가 많다. 최악의 경우 시민 병원이나 행려병자 수용소에서 발견 되기도 한다.

5. 분노의 질주형

참 대책이 없는 형태이다.술에 만취하면. 이유없이 뛰기 시작하며. 흥이 날 경우에는 차도 중앙선.방파제.철길 등 스릴을 즐기기도 한다.

이럴 경우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동료들도 같이 뛰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 대형 사고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6. 정의의 용사형

술만 취하면 싸우는 형.... 주로 주변 사람과 많이 싸우며. 정의의 피가 끓어 분노가 치받치는 형태로 싸우는 이유는 안주발 세우는 사람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서 옆사람 치는 경우 등이 많으며 주변에 사람이 없어 싸움이 성립되지 않으면. 전봇대나 아스팔트.동네 간판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이형은 특이하게도 아침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7. 동시 상영형

이 형은 주로 필름이 끊겼다는 말로 설명 되기도 하는데.. 골치아픈 점은 지난밤이 생각나지 않거나 꿈과 혼동되어 기억을 재편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주위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 쓸데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평소 싫어하던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의가의 의견에 의하면 알콜중독 초기 증상이라고 한다.

8. 람보 또는 코만도 형

가장 위험한 형 중의 하나... 주로 쓰레기통이나 자동차 사이드미러.동네 간판 등을 타치는 대로 파손하며. 도망치는 수준은 거의 홍길동에 근접한 관계로 주로 완전 범죄가 된다. 그러나 완벽이란 없는 법..... 콘크리트로 만든 쓰레기통이나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 파출소 간판 등을 공격 목표로 삼아 경을 치기도 한다. 때로는 공중전화 부스를 공격하기도 하는데 부작용으로는 감전. 유리에 베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한다.

9. 미소속에 비친 그대 형

특별한 이유없이 실실 쪼개는 스타일이다.

큰소리로 웃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형태로 미소를 짓는다.

주로 알콜기가 허파에 들어가서 생기는 현상이며. 길거리에 다닐 경우 사람들이 실실 피한다.

10. 대중가수 지망 형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는 형태.....

주로 부르는 곡명은 자기 나이 세대가 부르는 노래보다.한 세대전의 노래를 좋아한다.

"황성 엠티", "신라의 달밤", "고래사냥", "소양강 처녀" 등이 대표적인 곡이며. 때로는 신곡을 발표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쉬어가는 퍼즐 코너

Fuzzle

1		2		3		4
5			6		7	
					8	
	10			11		
12						13
14				15		

(정답은 51페이지)

가로열쇠

- ① 조선 후기의 실학자(實學者)인 박제가(朴齊家:1750~1805)가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와서 쓴 기행문.
- ③ 소나 말이 끄는 짐수레.
- ⑤ 뽕나무의 수액(樹液)을 써서 가공·도장된 제품.
- ⑧ 냉수에 간장·식초로 간을 하고, 고춧가루·깨소금·참기름·파 등을 넣은 국.
- ⑨ 24절기의 하나. 2월 4일경으로,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에 있음.
- ⑩ 땅을 파거나 작토(作土) 또는 제초(除草) 등의 작업에 쓰이는 농기구.
- ⑭ 높이 2~3m. 봄에 옅은 분홍색 꽃이 잎보다 먼저 피. 산간 양지에 남. 두견. 산적초.
- ⑮ 물푸레나뭇과의 낙엽 관목. 높이 3m 내외. 이른 봄에 잎에 앞서 노란 꽃이 피. 흔히 울타리용으로 심음.

세로열쇠

- ① 큰곰자리의 꼬리에 해당하는 α(두베)에서 η(알카이드)까지의 일곱 별.
- ② 인간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
- ③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 땅 속에 둥글고 흰 비늘줄기가 있으며, 앞은 긴 대롱 모양임. 4월에 흰색 또는 붉은색 꽃이 피. 매운맛이 있으며 식용함.
- ④ 지구 표면의 일부나 전부의 상태를 기호나 문자를 사용하여 실제로보다 축소해서 평면상에 나타낸 것.
- ⑥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업무를 행하는 장소.
- ⑦ 외국에서 생산 및 가공된 물품이 자국 세관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과정.
- ⑧ 십자화과의 두해살이풀. 길가나 밭에 남. 봄에 흰 꽃이 피며 열매는 삼각형임. 어린잎과 뿌리로 국을 끓여 먹음.
- ⑩ 여성의 몸치장으로 한복 저고리의 고름이나 치마허리 등에 다는 패물.
- ⑫ 가시광선 자외선·적외선·X선·전자선 등의 작용에 의해서 감광층(感光層:건판이나 필름) 위에 물체의 반영구적인 영상(影像)을 만들어내는 것.
- ⑮ 속이 빈 대롱에 구멍을 뚫고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의 총칭.

지하철역에 오면 문화공연을 볼 수 있다?!

광명문화의집 | 오은영

싸늘한 바람을 종종걸음으로 뒤로한 채 오늘도 언제나 처럼 지하철에 오른다.

얼었던 몸을 녹여줄 만한 더운 공기, 한 손엔 읽다만 도서 한 권, 귀를 즐겁게 하는 미니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잡음들... 일상과 다르지 않은 오늘에 조금은 무료함을 느낀다.

손에 잡힌 즐거리의 끝을 잡고 있던 시선이 지하철 공간으로 이동된다.

온통 붉은 색, 녹색, 흰색이다.

나는 어느새 전나무 숲 가운데에서 눈 내리는 풍경을 보고 있다.

주변의 웅성거림, 갑탄사, 뛰어 다니는 아이들의 툭툭한 발자국 소리...

마치 산타의 나라에 온 듯한 이 공간이 내가 광명역에서 올라 탄 7호선의 끝자락이 맞는가...

한참이나 고민해야 했다. 이러한 고민은 비단 나 뿐만은 아닌듯 뛰어 다니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난감해 하고 있는 눈치다. 산타 썰매 위에 앉아도 될 지, 전나무 그늘에 앉으면 마치 내리는 눈이라도 맞아야 하는 양 주춤거리며 서성이고 있다.

아이들처럼 두 칸의 지하철 공간을 이동하며 벽을 만져보는 할아버지도 보인다.

이러한 지하철에서의 문화공연은 소수계층에 한정되어 있는 공연문화를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중문화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 4월 사당역(4호선 만남의 광장)에서 최초로 진행되었다.

서울 지하철 문화원은 지하철을 매개로 하여 현대사회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문화의식을 갖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문화열차를 출발시킨 것이다.

교통의 중심 축으로 자리잡은 지하철은 현재 우리 국민의 1/4을 넘는 1일 6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으며, 이용계층은 대부분이 서민층이다. 이러한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의 발전을 이루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한 곳이 바로 이 지하철 공간이며 이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이 되어 줄만한 문화적 요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승강장의 사랑의 편지

3초의 여유

충신대 - 10월

엘리베이터를 났을 때

닫기 버튼을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려 주세요.

누군가가 정말 다급하게 오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출발신호가 떨어졌는데도 앞 차가 서 있다면

크랙션을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 주세요.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차 안에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 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리 할 것입니다.



친구와 헤어질 때

나의 뒷모습을 3초만 바라봐 주세요.

행여 가다가 돌아봤을 때 환하게 웃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화가나서 잔소리를 하더라도

3초만 미소지으며 들어주세요.

저녁엔 넉넉한 웃음이 밥상 가득 피어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 놓을만한 3초의 여유...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여유를 갖고 계신가요

지하철 역 승강장에 붙어있는 사랑의 편지를 본 적이 있는가?

현대사회의 산업화로 인하여 사람들의 감정은 점차 메말라가고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고민과 짐을 안겨 주는 이 시대에 역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사랑의 편지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마음의 양식을 전달해 주는 매개체가 되어가고 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짝투리 시간에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역 주변으로 눈을 돌려본다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테마가 있는 지하철

지하철에서의 공연문화는 지역특성을 살려 테마별 이벤트를 펼친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면 4, 7호선 이수역 또는 그 밖의 지하철 역내에서 프로예술인 또는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개인의 기량을 한껏 발휘하여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공연자들에게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는 특별하고 신선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악, 클래식, 청소년, 대학생, 노동자의 마당 등 지하철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 다양한 이용객이 누릴 수 있는, 모두의 참여로 열려 가는 문화!!! 열린 공연으로 만들어진다.

지하철역에 오면 문화공연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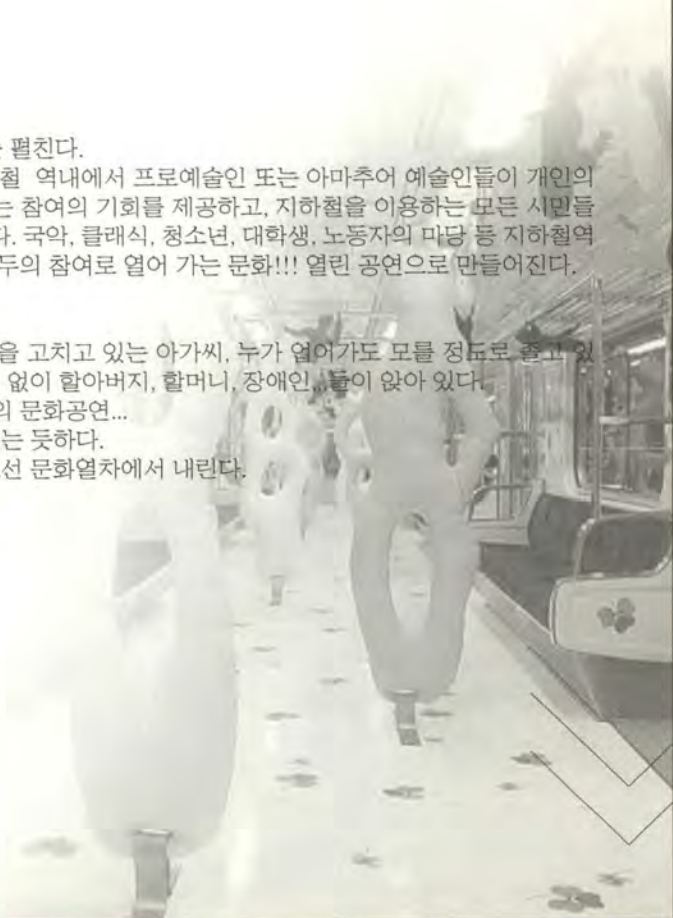
지하철엔 온갖 사람들이 다 있다. 신문을 보는 아저씨, 화장을 고치고 있는 아가씨, 누가 얻어가도 모를 정도로 졸고 있는 학생,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노약자 석에는 누가 뭐랄 것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장애인...들이 앉아 있다.

지난해의 봄, 어느 샌가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온 지하철 내의 문화공연...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고 더욱더 다양한 문화를 시도하고 있는 듯하다.

어느새 환승해야하는 지점에 이르러 아쉬움을 뒤로하고 7호선 문화열차에서 내린다.

지하철은 이제 더 이상 교통수단만을 아님을 생각하며...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1919년 3월 1일에 일본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에 맞서 일어난 온 겨레의 항일 민족 독립 운동. 기미 독립 운동이라고도 한다. 엄밀한 뜻에서는 불법으로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으려는 '국권 회복 투쟁'이었다.

3.1운동은 1904년 한·일 의정서가 협정된 이래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정책에 끊임없이 시달려 오다가 1910년에 마침내 일본의 강압으로 주권마저 빼앗기고 말았다. 그로부터 일본은 우리 겨레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무단 정치로써 탄압과 착취를 일삼았으며 지식인과 종교인을 비롯해 학생, 농민,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반일 감정이 날로 더해 가고 있었다. 마침 그 무렵 제1차 세계 대전이 독일의 패망으로 끝나고, 1918년 1월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은 평화 14개조 가운데서 '민족 자결 원칙'을 내놓았다. 이 민족자결 원칙은 항일 독립 투사들에게 크게 용기를 북돋우어 주는 바가 되었다. 그와 같은 세계 조류 속에서 1919년 1월 22일에 고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이 일본인에 의한 독살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온 국민의 분노는 극도에 이르렀다.

3.1운동은 시작된 지 3개월 동안 211곳에서 200여 만 명이 참가하였으며 모인 횟수만도 154회, 죽은 동포가 7,509명, 다친 사람은 1만 5,961명이나 되었고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은 4만 6,948명이었다. 결국 3.1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몇가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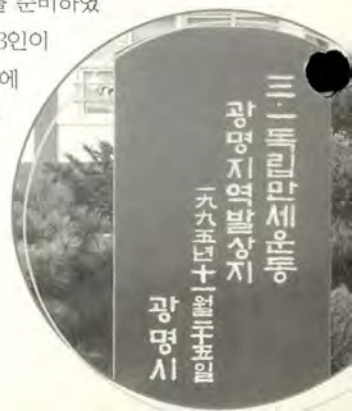
3.1 운동을 계기로 온 겨레가 독립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민족의 강한 의지와 저력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게 한국의 국권 회복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3.1 정신은 국권 회복 투쟁의 정신적 전통으로 계승되어 오늘날의 민족 정신, 자유 정신, 평화 정신으로 승화해 영원한 민족의 지표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봄직하다. 이러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광명의 3.1운동 발상지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탐방해 보았다.

❖ 광명의 3.1 운동 발상지 기념비

운신초등학교 내에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념비가 있다. 지금은 초라하게 기념비 하나만 우두커니 남겨져 있지만 그 기념비가 의미하는 여러 가지 3.1운동의 의의와 독립운동가들의 땀이 함께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봄직하다.

현재 광명시 지역에서 3·1운동이 처음 일어난 시기는 3월 27일로 확인된다. 이정석(서면 소하리 거주)이 노은사리 주재소 부근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선동하다가--참가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28일 아침 출동한 일본 경찰에 강제 연행되어 치안법 위반죄로 노은사리 경찰관 주재소에 구금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서면지역 주민들이 이정석을 구출할 계획을 세움으로써 이 지역에서 3월28일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위운동이 일어났으며 동리 사람들은 곤봉과 돌을 준비하여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시위대는 먼저 주재소를 포위하였으며 최호천이 이끄는 시위대는 주재소 구내에서 만세를 부르고 또 보통학교 뒤편에서 만세를 부르고 자진해산하였다. 그러나 일본경찰은 이정석, 최호진, 윤의병 등 많은 사람을 주모자로 체포하여 갖은 고문을 가하였다고 한다. 광명지역 3·1운동의 특징은 학생이 주모하여 주도하였고 시위의 중심은 농민이었으며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이 매우 자발적 이면서 동, 리 단위의 집단 시위참가가 이루어졌고 특히, 광명지역에서는 사전에 폭력시위를 준비하였

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이는 33인이 내걸었던 비폭력주의와는 근본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지식층인 학생의 의식과 3·1운동이 폭력화하여 가는 일반적인 과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 윤봉길의사 기념관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획을 긋고, 오직 독립운동의 외길을 걸어 25세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대한 윤봉길의사 기념관이 양재 시민의 숲 2,000여 평의 대지 위 한편에 자리하고 있으며 1988년 10월에 개관하여 지하1층·지상 3층으로 구성된 그대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

1층 유물전시실

윤봉길 의사의 생애를 수학기·농민운동기·상해의거기로 구분하여 선생이 사용하시던 서책·문방구 등 당시의 소지품 및 훈장 등이 전시되고 있어 윤봉길 의사의 생애를 속속들이 알려주고 있다.

2층 독립운동 사진전시실

무장 투쟁과 의열 투쟁 중심의 독립운동관계사진 120여 점을 전시하고 있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만주벌판에서 외로운 투쟁을 벌였던 애국지사들의 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

3층 강당

각종 행사 및 세미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기념관 각층의 자료를 둘러보면서 윤봉길 의사의 독립운동 정신과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함께 삼일절을 맞이하여 순국선열을 기리는 마음으로 간단한 묵념을 올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윤봉길의사의 생애

윤봉길은 1908년 6월 21일에 충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본명은 우의(禹義)였고 봉길은 별명이다. 뒤에 지은 아호는 매헌(梅軒)이다.

국내에서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자 23세 되던 1930년에 "장부가 집을 나가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장부출가생불환 : 丈夫出家 生不還)라는 글을 남기고 만주로 망명하였다. 1931년에는 상해로 옮겨 김구 선생에게 가서 독립운동에 몸 바칠 각오임을 호소하였다. 마침내 1932년 4월 29일 일본인들이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천장절 기념행사를 벌이던 홍구공원에서 야채상으로 가장하였던 윤봉길은 단 위에 도시락으로 위장한 폭탄을 던져 상해 파견군 사령관 시라가와를 폭사시키는 등 축제장을 축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거사 직후 현장에서 잡힌 그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그 해 11월에 일본으로 호송되어 12월 19일 25세의 나이로 오직 독립운동의 외길을 걸었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청소년 문화의 집 | 정현주



참고로 기념관 주변환경은.....

8만여 평의 넓은 대지에 잣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많은 수목이 울창하게 심어져 있는 장소로 공원 곳곳에 나 있는 오솔길을 걸으면서 한가한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배구장과 테니스장에서 체력을 키울 수도 있다. 조경이 잘 이루어진 야외예식장 두 군데를 무료로 대여 해줌으로서 시민들에게는 편리한 자연 휴식 공간이다.

◆ 윤봉길 의사 기념관 정보(Tel 576-6532), 관람시간 : 오전 10:00 ~ 16: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입장료 : 초, 중, 고등학생 300원 / 성인 1,000원, 교통안내 양재역 7번 출구 성남방향으로 6, 66, 63-1, 239, 239-1번 시민의 숲에서 하차



천하제일명산과 사람들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문화원 연합회 사무국장 금강산 연수를 가졌다.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금강산의 빼어난 아름다움 속에서 뜻모를 애뜻함이 배어난다"고 입을 모았다. 외금강 만물상에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남아 있는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문화원 사무국장과 관계자 등 200명과 연수길에 나섰다. 우리는 금강호에 이어 현대에서 두번째로 여운 봉래호를 탔는데, 배타고 오가는 시간을 빼면 이틀간만 금강산을 구경한 셈이다. 잠은 해상에 있는 금강산 호텔을 이용했다.

출항지인 속초항까지 가는 버스와 검푸른 바다를 미끄러지듯 북으로 흘러가는 배 안에서 상념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분단 반세기. 내 나이보다도 20년이 더 된 오랜 세월 동안 가지 못했고, 갈 수 없었던 땅, 그곳에 닿아 맨 먼저 떠오르는 느낌은 무엇일까? 감격일까? 아니면...

또 북측(현대에서 북측이라는 말을 쓰라고 설명했다)사람들을 만나면 뭘 물어 보지?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나? 북측 여성을 만나면 시집은 갓습니까? 등등...

이튿날 아침, 장전항에는 부슬비가 오락가락했다. 굵은 날씨 속에 북한땅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설렘과 감격을 느낄 것이라는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답답했다. 통일연원에 대한 벅찬 감회를 애써 떠올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 장전항 선착장에 서 있는 '금강산 관광객을 동포애의 심정으로 환영한다'라는 붉은 환영간판을 보고서야 여기가 북한땅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금강산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뉜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쪽은 구룡폭포·만물상등이 있는 외금강,



서쪽으로 장안사·단발령 등이 있는 내금강, 외금강 해안
가 삼일포 지역의 해금강이다.

우리는 이틀간의 관광일정 중 첫 날은 구룡폭포를, 둘째날
에는 삼일포 코스를 다녀왔다.

구룡폭포 가는 길은 계곡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큰 바위
가 수많은 폭포와 어우러져 장엄함과 유려함을 자아낸다.
마치 설악산의 수많은 비선대를 골마다 굽이마다 절벽마
다 옮겨 놓은 것 같다.

바위 표면도 매끄럽고 단단해 옛날 풍류객이 새긴 글귀나
이름이 곳곳에 남아 있다. 여기에 사회주의 제도와 체제에
관련된 구호나 시구도 새겨져 있다.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선전구호를 새기는 것은 반대하
지만 어느 글귀는 너무 아름답고 미려하여 한참을 쳐다보
기도 했다. 또 높이 90여m에서 물을 토해내는 구룡폭포
의 장쾌함이란... 등산을 마치고 배로 돌아올 때 한번씩
들르는 온정리휴게소 앞에 '천하제일명산'이라고 써 있
는 간판이 그들의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등산로 곳곳에는 북한 안내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이
등산로를 관리하며 관광안내(물어 보면 짧은 대답뿐이지
만)를 한다.

이런 일 외에 중요한 임무는 관광객이 쓰레기 따위를 버리
는지 감시하는 것과 사적지(김일성 주석의 방문을 기념하
는 비석 등 석조물)를 보호하는 것이다. 금강산은 놀랄 만
치 깨끗하여 정말 담배꽂초 하나 발견할 수 없었다. 북한
인조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오를 수 있다니, 세계
의 명산을 가꾸고 보전하려는 그네들의 노력만은 칭찬할
만하다. 좀 볼 것이 있는 산이란 산에는 입구부터 음식점,
놀이시설 따위가 빼곡이 들어선 우리네와는 영 판판이다.
구룡폭포 등산로와 삼일포 오고 가는 길은 버스로 이동하
는데, 버스 차창 너머로 언뜻언뜻 북녘 동포들의 모습과
생활을 볼 수 있었다. 진한 겨자색 군복 차림의 군인, 머플
러를 두르고 짐을 이고 바삐 길을 재촉하는 아주머니, 발
을 가는 농부,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는 성인, 학생복을
입고 책가방을 멘 채 하천 제방길로 줄지어 걸어가는 어린
학생들...

여기서 그들의 옷차림이 어떻네, 북한 경제가 나쁘기는 나
쁜 모양이네 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관광길 철조망 양쪽에 1백m 간격으로 줄지어 선 경계병,
도로 정비작업 중인 검은 작업복의 주민, 시멘트색 일변도
의 허름한 집과 건물, 등산로 주변의 바위에 새겨진 사회
주의 구호가 여려하니까 대해서도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본 어느 풍경 같은 아련한 기억과, 외
세와 이념이 뒤범벅이된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가 가슴
을 짓누르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길에 한 어린이가 버스를
향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함께 갔던 동료의 얼굴에서 씩씩하고 당당한 표정을 언뜻
보았다. 우리 마음 속의 대결의식을 꾸짖는 것일까?

수 만년 변치 않았을 아름다운 금강산! 세계에 내놓아
도 손색없는 금강산! 그곳, 금강산 자락 마을에서 길
을 다듬고 땅을 일구며 한결같이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
들 동포들이 있어 착잡하다.

광명문화원 | 한옥현

New York Story



청소년 문화의 잠 | 윤철

미국방문은 처음이다.

여러나라를 여행해 보았지만 미국의 문도 쉽게 열리지 않는 나라 일 것이다

물론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조치이겠지만 비자 받기가 엄두가 나지 않아 그 동안 여행을 미루어 오다가 이제서야 미국, 뉴욕을 방문하게 되니 여러 가지 심사가 뒤를린다.

이번 여행의 과제는 음악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음악교육의 현실과 전망, 운영체계, 교육방식 등을 벤치마킹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을곧게 성장한 조카, 미국 청년학교의 교장이며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인 승규를 만나는 일이 개인적인 과제이다.

뉴욕으로 가는 노스웨스트의 좌석은 많이 비어있다.

사람이 적어서 자리는 편했지만 911 테러의 여파가 미루어 짐작이 된다. 여행은 늘 그렇듯이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한다. 그 중 가장 큰 이유가 언어문제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없건만 여행을 준비하거나 다녀온 후 영어학습계획을 세우지만 영어는 좀처럼 늘지 않았으며 그때 뿐일뿐 학습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내가 겪는 문제이다.

성인들은 자기 학습조절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평생교육자와 논쟁을 해야 할 까 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장시간 비행에 적응하고 있는데 나이든 스튜어디스가 입국카드를 나누어 준다. 이제 거의다 온 것이다.

11월 30일 오후 1시 30분에 비행기는 존에프케네디(JFK)공항에 무사히 착륙하였지만 뉴욕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고 뉴욕의 하늘이 어둡게 다가 온다. 16시간의 비행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따라 입국심사대에 섰다. 흑인여자에게로 가라고 한다. 조금은 위압적이고 공항은 경비가 심하고 살벌하다.

What's purpose of your trip ?

It's business, and travel.

How long will you be here ?

Ten days.

유심히 여권을 들여다보더니 뭐라 한다.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저쪽으로 가라한다. 짧은 영어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후배놈이 수염만 기르면 빈 라덴이라더니 혹시? 아니면 불법이민자로 오해를... 이민국이다.

심사관이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귀에 안들어 온다. 결국 통역을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권 사진이 떨어지고 위조된 것 같아서 었다고 한다. 잘 설명하니 바로 나가라고 한다. 6개월까지 있어도 좋다는 도장이 찍혀 있다. 뉴욕은 나를 반기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비가 오는 거리를 자동차로 달린다. 뉴욕의 거리는 음산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무거워 보였고 자동차마다 휘날리는 성조기는 시위 그 자체였다. 911테러는 그 만큼 충격이었던 것 같다. 안내하는 사람이 낙서벽을 가리키며 '이민자 들은 물러가라' 라

고 써있다고 알려준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후 뉴욕시민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대답해한다. 내가 뉴욕에 도착하여 처음 받은 인상은 미국은 강대국가라는 것이다. 결국 그 오만함이 그 커다란 빌딩을 쓰러 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이여 미국에게 축복을'이라는 구호를 가계마다 붙여놓고 사람들을 전쟁으로 내모는 강대국가라는 느낌이 머리 속을 맴돌기만 하고....

뉴욕의 첫날이 이렇게 저문다

아침에 뉴저지쪽에서 바라보는 뉴욕의 풍광이 참 아름답게 다가온다.

물론 없어진 쌍둥이빌딩으로 인해 여행객인 나도 조금은 어색하고 웬지 빈듯한 느낌을 갖게되는데 뉴욕커들이야 오죽하랴 대단한 상실감이 그들의 몸짓에서 느껴진다. 워싱턴브릿지를 건널 때도 군인들이 일일이 검문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자유로운땅, 기회의 나라 미국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는가?

아침부터 여러가지 상념을 안고 맨해튼으로 들어간다. 맨해튼은 세로로 긴 섬이다.

광명시도 세로로 긴 고구마형이지만 맨해튼은 더 길쭉하다. 도로로는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어 길 찾기가 매우 쉽다. 거리는 남북으로 나있는 도로를 Avenue(Ave) 애비뉴라고 하고 동서로 나있는 도로를 Street(St) 스트리트라고 한다. 몇번 애비뉴, 몇번스트리트에 있는 박물관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도 잘 짜여져 있기때문에 숫자만 알아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길 찾기가 수월한 편이다. 애비뉴의 1블록은 80미터 정도, 스트리트의 1블록은 250미터 정도이므로 구역을 나누어 도보로 움직이는 것이 여행객에게는 더 좋을듯 싶다.

맨해튼에 도착하여 우선 포스트를 만들었다. 7Ave 37St 패션거리에는 천지의 사무실을 기점으로 움직이기로 하였다. 맨해튼에서의 첫번째 방문지를 53번가(St)에 있는 현대미술관으로 정하고 걸어 나간다. 뉴욕의 거리는 표정이 있다. 패션거리를 지나 브로드웨이쪽으로 걸어가니 극장들이 많이 보이고 웬지 사람들의 분위기도 달라 보인다. 두리번 거리는 재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두리번 거리는 재미는 나를 찾아가는 또 하나의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20분쯤을 걸었을까 거리는 한결 정돈되어 있고 우중충한 느낌도 없는 거리에 들어서니 (나중에 알고보니 이거리가 명품만을 파는 거리라고 한다) MOMA라는 천으로 된 플랭카드가 보인다. 모마는 The Museum of Modern Art의 약칭이다. 즉 현대미술관은 모마라는 약칭으로 불리워 지고 있다.

이 미술관은 1929년 가을에 존 록펠러 부인등 3명의 여성이 중심이되어 인상파 이후의 유럽미술을 소개하자는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초기에는 세잔, 고흐, 슬러, 고갱 등의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소장품 수가 10만점을 넘고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음을 미술관에서는 자랑하고 있다.

1층에는 기념품점과 조각 등이 있으며 2-4층이 상설전시관이 다. 2-3층은 회화와 조각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 후기 인상파부터 입체주의, 표현주의, 포비즘(야수파) 구성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까지 전시되어 있으며 3층에는 미국과 유럽의 추상표현주의, 전위미술, 그리고 팝아트까지 전시되어 현대미술의 흐름을 잘 알수 있도록 구성 전시되어 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간다. 1880년대의 후기인상파의 그림들.... 처음 내 눈에 띄는 그림, 빈센트 반 고흐의 우편배달부이다.

예술가들은 대부분 고흐컴플렉스가 있다던데 나는 그의 그림을 만나면 흥분이 된다.

그 옆에는 고흐의 '별헤는밤' (The Starry Night)이 내 눈가를 가볍게 떨게한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물결치듯이 구사한 거친 필법과 하늘과 달, 별, 측백나무가 명쾌하게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은 고흐가 귀를 자른 사건 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 캔버스에서 비치는 그의 분노와 광기가 느껴지기도 하는 작품이다.

옆으로 돌아가니 고갱의 그림이 나를 막는다.

고갱은 아를르에서 고흐와 함께 생활했는데 고흐가 면도칼로 고갱에게 상처를 내고 후회를 하며 오른쪽귀를 찢은 일화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다. 고갱의 '3마리의 강아지'라는 작품이 흥미롭다.

이곳에는 피카소의 그림이 많다.

입체파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아비뇽의 처녀들)이 보인다. 아비뇽은 바르셀로나의 매춘가인 아비뇽을 말한다. 당초에는 다섯명의 창녀와 2명의 수병이 그려져 있었는데 여러번 덧칠하면서 현재의 그림으로 되었다고 한다.

입체파인 세잔의 '목욕'이 보이고 판그리스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다.

나는 이곳에서 모네를 만났다.

모네의 "수선"이 이렇게 큰 대작인줄도 몰랐고 이렇게 가슴속에서 즐거움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림인줄 몰랐다. 좋은 그림을 만나면 나는 다시 두리번 거린다.

두리번 거리면서 그 주변을 맴돈다.

가까이 가기도 하고 그림의 냄새도 맡아 보고 결눈질로 그림을 보기도 하고 한마디로 별 짓을 다하면서 "수선"을 '모네'를 느끼고자 한다.

오늘 나는 이 그림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다

오늘 나는 "수선"의 포로가 되었다.

오늘 나는... 오늘...

라이방.

“인간은 행복이나 불행을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행복이나 불행은 인간을 선택할 수 있다.”

작년, 조폭들의 활약은 주목할 만한 것이어서 도저히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거대 블록버스터 헐리웃 영화들을 상대로 무려 50%에 육박하는 관객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국영화의 이 놀라운 선전에 사람들은 당황했고, 일부에서는 특정 소재, 장르에 매몰되어자멸한 홍콩영화계와 견주면서 한국영화 거품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연말 등장한 4편의 한국영화(-와이키키 브라더스, 나비, 고양이를 부탁해, 라이방)가 관객들에게 철저히 외면 당하면서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구질구질한 일상을 잔잔하게 다룬 그 4편의 영화는 소란스럽지 않게 감동과 재미를 제공하면서 일부 관객들의 요구로 재개봉되거나 상영일을 연장하게 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영화 <라이방>은 '게임의 법칙'으로 한국 조폭액션영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장현수 감독 작품이다. 연변처녀를 짝사랑하는 배불뚝이 '해곤', 베트남 참전용사인 삼촌 자랑으로 주변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학락', 대학 나온 인텔리(?)로 한 가족의 고단한 가장 '준형'. 영화는 택시운전을 업으로 살아가는 이 세 사람의 지긋지긋하게 짜증나는 일상을 잔재미와 유머로 시종일관 재치있게 그려내고 있다. 돈 때문에 고단한 그들의 현실에 실질적이고도 가장 큰 위로는 서로의 존재, 그 자체이다. 자신의 처지를 알고 이해해 주는 친구와 함께한다는 것.

비록 유오성, 장동건처럼 폼나지는 않지만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이방'은 베트남어로 '썬그라스'를 뜻한다. 썬그라스는 간단한 착용으로 사람을 폼나게 만들어 줄뿐만 아니라 썬그라스를 끼고 바라보는 분명 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그들은 떠남으로서 도착했고, 버림으로서 얻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화가 끝난 후, 징그러운 녀석들과 마주 앉아 닭 한 마리 튀겨놓고 생맥주 한 잔 마시며 킁킁거리고 싶은 것은 비단 필자뿐일까?

- 박형근



손에 잡히는 도서 한 권

『손님』

"...손님마마란 거이 원래가 서쪽 병이라구 하댔다.

내가 너이 하래비 우로 아덜을 둘씩이나 손님마마에게 보내고 났시니 양구신에 부마가 나갔너나 좋다구 믿겔 너나 사람은 제 근본얼 알아야 복을 받는게다..."

한국전쟁. 동족상잔의 비극이란 말 한마디로 어찌 그 거대하고도 질긴 상처와 고통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애초에 하나였던 민족이 둘로 갈라져 사랑과 이해보다는 미움과 증오를 먼저 가르치고 배웠던 분단이 시작된지도 어언 57년.

이제 우리 시대의 작가 황석영이 가슴 아픈 역사와 시대를 살다간 한 많은 이 땅의 민초들을 위로하는 한판 굿을 벌려 놓았으니 그 책이 바로 『손님』이다.

우리 민족 스스로가 자생적인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타의에 의하여 들어온 기독교와 마스주의를 '개화'로 열렬히 받아들이며 거치게 되는 식민지와 분단시대... 작가는 천연두를 서병으로 파악하고 이를 막아내고자 했던 조선 민중들의 형식을 빌어 기독교와 마스주의를 근대 한국사회의 '손님'으로 규정한다.

전세계는 지금 냉전이 사라진 지 오래건만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수도 한복판에 버젓이 외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온 나라가 전쟁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요즘, 우리에게 사실상 무서운 '손님마마님'은 과연 누구일까?

작가 황석영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책을 마무리 짓고 있다. '아직도 한반도에 남아 있는 전쟁의 상흔과 냉전의 유령들을 잠재우고 화해와 상상의 새 세기를 시작하자!'

- 황석영 작

손님

창가의 토토



우연히 서점에서 예쁜 소녀가 수채화로 그려져 있는 깨끗한 책 한권이 눈에 띄어집어드니 제목이 "창가의 토토"다. 얼마전 "이웃집 토토로"라는 따뜻하고 예쁜 만화영화를 보고 감명 받았던 친근한 마음으로 읽어 내려간 책은 정말 의외의, 아니 전혀 기대이상의 큰 감동과 따뜻함을 나에게 안겨준 고마운 책이었다.

책 한 권을 만나절동안 단숨에 읽어 내려간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가?

읽는 동안 내내 내 가슴에는 따뜻함이, 내 머리 속에는 책 속의 아이들의 모습이 떠나질 않았다. 이 책의 저자는 구로야 나기 테츠코라는 일본의 유명한 연예인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토크쇼 진행자이며 가요프로그램의 사회자로 유명한 아줌마인데 어릴 때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이다.

토토는 테츠코의 애칭으로 유별난 아이였다.

소학교 1학년에 입학한 토토는 하루에도 수백 번 책상뚜껑을 여닫거나 길 가던 친동아 아저씨를 불러 노래를 부르게 한다.

결국 학교는 토토가 산만하고, 다른 애들의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퇴학을 시킵니다.

토토엄마는 토토를 요즘 말로 대안학교인 도모에 학원에 보내게 된다.

첫 날 고바야시 소사쿠라는 교장선생님은 토토에게 무엇이든 이야기 해보라고 하시고는 4시간동안이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준다.

그 후 토토는 이 학교에서도 어김없이 말썽쟁이짓을 계속 한다.

정화조에 떨어뜨린 지갑을 찾기 위해 정화조를 파놓는다거나,

모래 구덩이에 파묻히는 등등....

그러나 엄마에게도 선생님에게도 토토는 한번도 야단맞지 않는다.

스스로 앞으로는 조심해야 겠다고 깨달아갈 뿐이다.

토토는 자라면서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염려하는 다정 다감한 아이로 되어간다.

수많은 에피소드를 읽다보면 토토와 내가 같이 학교를 다니는 듯한 착각이 든다.

이 책의 배경은 2차대전이 막바지로 치달던 시절이다.

책을 읽고 나니 부러움과 속상함이 한꺼번에 교차한다.

난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없다.

선생님의 이름도 사실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

선생님의 역할이란 것이 학교의 어른으로 상징적으로만 느껴질 뿐이다.

고바야시 소사쿠 선생님과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토토가 너무 부럽고 샘이 난다.

나의 아이에게도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 나라 학교 현실은 어떠한가.

2001년 우리의 학교는 아직도 답답하기만 할 뿐 이다.

토토의 엄마는 나를 한번 되돌아보게 했다.

요즘 나를 많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큰딸이 혹시 토토처럼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 인데 내가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아이가 소사쿠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기 어렵다면 토토의 엄마와 같은 엄마를 만나게 해주자.

지혜로운 엄마, 현명한 엄마가 되고 싶다. 자 나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겠지!

강숙 (주부, 광명 4동)

좀머씨 이야기

한 아이가 있었다. 키가 1미터가 약간 넘는 정도의 가벼운 몸을 가진 아이는 정말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다시 땅으로 내려올 수 있을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것을 포기했다.

아이가 사는 마을에는 '좀머씨'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혹은 과거에 무엇을 하였는지 등은 전혀 아는바 없지만 그 근방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이다. 좀머씨는 텅빈 배낭을 짊어지고, 길다랗고 이상하게 생긴 지팡이를 손에 쥐고 뒀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잔걸음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묵묵히 걸어다니기만 한다. 이에 대해 무수한 소문들이 있다.

"밀폐공포증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와 그리스 어에서 유래되었대...."

그 말의 의미는 <닫음> 혹은 <고립>이고.... "밀폐공포증은 병이라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방안에 갇혀만 앉아 있지 못하대...." 그래서 좀머씨는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기듯 돌아다니기만 하는 거라고 말이다. 점심도 간단한 샌드위치로 걷는 도중에 때우고 누군가가 말을 걸어도 알아듣지 못할 말만 하고 행하니 가버린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저 걸기만 하는 사람이 어딜 가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아주 바쁘다고만 할 뿐이다. 하루는 무더운 피약벌 아래서 길을 재촉하고 있던 좀머씨에게 갑작스레 소나기가 퍼붓는다. 아빠와 함께 시내에 놀러갔다가 오는 길이던 아이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걷고 있는 좀머씨를 보게 된다. 아빠는 그에게 차를 타기를 권하지만 그는 그 말을 무시한 채 비속을 계속 걷기만 한다. 성난 아버지는 "그러다 죽겠어요"라며 마지막으로 타기를 다시 권한다. "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 추위에 떨리는 입술과 간청하는 듯한 이 말을 남긴 채 빗속으로 사라져간다. 아이는 그 모습을 잊지 못한다.

좀머씨 이야기는 인생에서 방랑 길을 걸어간 한 이상한 인간의 이야기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평생 쫓기듯 걷기만 하며 살아온 삶을 그는 그 공포에서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잠기듯한 신음소리와 함께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삶을 마친다.

어렸을 적, 어느 날인가 아주 친했던 할머니의 주검을 우연히 보게된 이후로 죽음은 항상 나를 따라 다니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잠이 많던 아이가 새벽녘이 다 되도록 잠을 못 이루는가 하면 아무 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한 달 정도를 그렇게 고민했을까?

나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머리 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했다.

지금도 가끔 그 근본적 물음이 나를 괴롭힐 때면 나는 머리 속을 수면상태로 바꾼다.

좀머씨의 회피가 나에게는 안타까움으로 다가옴과 동시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삶과 죽음을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도록...

좀머씨 이야기
신승희(철산 1동)



신승희(철산 1동)

오리문화축제

I. 취지 및 목적

문화적 자생력 강화 21C 문화산업의 한 주축이 될 음악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석마련의 목적으로 문화적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음악 도시의 건설을 위해 시민들의 정서적 공감과 이해를 동시에 얻어낼 수 있도록 하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체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지역적 특성화를 위한 아이템을 개발** 음악산업의 유치를 위해 기존의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음악적 요소들의 배치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흥대, 신촌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인디 밴드들을 한 곳으로 모아 그들의 젊음과 도전정신을 음악도시로 발돋움하는 광명의 이미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쌍방향 문화적·음악적 소통의 장** 30만 인구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 높은 행사들이 적어 타 도시들에 비해 문화적 혜택이 적은 현실을 감안할 때 시민들의 욕구와 제공자의 욕구가 맞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는 관성적인 행사 패턴을 가져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문화행사가 되고 만다. 음악 도시로의 기초가 될 광명문화축제로서의 의미를 살리고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될 시민들의 요구를 조합할 수 있는 범도시적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광명시민의 장** 명실공히 시민, 지역축제의 행사로 자리 잡아온 오리문화제를 광명시를 대표하는 문화 행사로 인지하도록 하고, 다양한 문화컨텐츠의 유치로 연명에 관계없이 함께 할 수 있는 한마당이 되도록 한다.

광명시민을 위한
MUSIC FESTIVAL

II. 전체 행사내용 및 일정

날 짜	시 간	장 소	소요시간	행 사 내 용	기 타
5월 9일 (木)	10:00	충현서원지	30분	충현서원지 참배	
	16:00	시민회관	4시간	당신의 음반을 만들어 드립니다.	개인의 음반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설치된 임시 녹음실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고 이를 녹음해 구워줌.
	17:30		60분	마당극(전통공연)	사회봉사 전통마당극
	19:30		90분	테마와 영상이 함께 하는 시민합창제 ■ 참가팀 : 어린이 합창단, 시립청소년합창단,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4인중창단	영상과 합창제의 형식을 통해 광명음악축제의 역사를 돌아보며 올해 11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한다. 또한 기존의 내용과 다른 레퍼토리로 합창단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5월 10일 (金)	14:00	시민회관 대공연장	60분	어린이 연극 “또또의 호기심 일기” ■ 대상 :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의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극이라는 예술적 매개를 통해 좀 더 즐겁고 편하게 그 또래의 성적 궁금증을 건강하게 풀어나가도록 해준다.
	14:00	시민회관	6시간	당신의 음반을 만들어 드립니다.	
5월 11일 (土)	10:00	실내체육관 야외공연장 외	90분	미술, 서예 백일장	주관 : 광명예총
	14:00		6시간	음반벼룩시장	개인적으로 소장한 음반들의 저가 유통 기회와 기존 음반사들의 참여유도로 저렴한 음반구입 기회를 제공함.
	16:30		90분	시민가요제	광명시민들의 노래축제 한마당
	19:00	실내체육관 잔디밭	20분	음악도시 선포식	
	19:30		120분	스프링 콘서트 (Spring Concert) 樂	이번 문화축제의 메인 행사로 젊은 음악인들과 광명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A급 밴드 공연과 함께 인디밴드들이 어우러지는 락페스티벌.
5월 12일 (日)	10:00	시민회관	90분	월드컵 성공개최 기원 제 2회 광명시민 마라톤대회	대운동장 → 실내체육관(5Km 구간)
	12:30		60분	월드컵 16강기원 패널트릭 대회 ■ 광명시 18개동 대표, 시청, 기자단, 소방서, 경찰서 팀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뤄져 우승팀(의 2팀)에게는 상품 또는 상금이 수여된다.
	10:30		3시간	먹거리장터	

▶ | 광명문화원 소개 |

광명문화원은 우리 생활속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지역주민의 열린 문화마당 '광명문화원'으로 오십시오.

"본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1992년 4월 개원한 문화단체로 전통문화계승·보존과 지역 문화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광명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 지역문화행사 개최
5월 오리문화제 / 10월 어린이문화장터 등
- 향토사의 조사 및 새로운 문화의 발굴
향토사연구소/문화의집/청소년문화의집
- 지역전통문화의 보존 및 선양
오리이원익 기념관
-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언론활동
광명문화저널/광명어린이신문 발행
-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사회교육활동
어린이기자단(광명어린이신문)
어린이영어연극단
어린이합창단(노래친구들)
남성중창단
청소년만화창작단(청개구리)
청소년연극단(울터)
청소년영상단(필름참고)
여성회 주부노래교실
주부영상단(해오름)
주부연극단(어울림)

광명문화원 회원의 특별한 혜택

1. 광명문화저널 등 각종 간행물 우송
2. 문화의집 강좌 수강료 10% 할인
3. 오리이원익기념관 프로그램 초청
4. 향토유적답사 등 기행프로그램 우선 초대
5. 여름·겨울 캠프 참가비 20% 할인
6. 어린이문화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10% 할인
7. 문화원 보유자료 및 서적열람 및 대출
8. 취미동아리 결성시 공간 등 편의제공
9. 오리문화제 등 각종행사 자원봉사 등 우선 참여
10. 문화원 회원증 발급

〈후원회원이 되시려면〉

- 신청방법 : 전화접수 후 계좌로 입금
(내방,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연회비 : 30,000원
- 입 금 : 농협 099-01-000054 (예금주:광명문화원)
- 문의 및 접수
광명문화원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222-1 시민회관 3층
T: 680-6269/2618-5800 F: 688-4385
Homepage : www.gmcc.or.kr
문화의집) T: 687-0556 F: 687-0557



| 광명문화원 회원소개 |

광명문화원 회원여러분의 문화발전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가나다 순)

최연순
임정순
강옥경
김선아
박순환
최분섭
신춘심
윤순남
이애영
전외숙
박상대
김귀남
노희숙
이미라
조봉자
박미우
이혜숙
이경희
김현숙
김미순
고미정
장영자
박병일
박우진
박필전
김남이
양난숙
김영선
이수연
안병희
조영숙
오금순
이훈자
권효근
한순자
전태훈
김명심
김수아
방미경
유효미
최현주
김성자
고미정
곽인자
김현숙
황명숙
김미순
이홍자
신성은

※상기 명단은 회비 납부자 명단이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문화원 임원 및 가족 소개 |



문화원 임원

원 장	정원조 682-3456	광명2동 50-2 예담 한의원 원장
부원장	유홍무 2615-9982	광명4동 158-235 새롬방송 회장
부원장	안수남 2615-0077	철산2동 성리빌딩 402호 안수남 세무사사무소
부원장	곽향숙 689-9944	산3동 241-1 사회체육센터 외대어학원 원장
감 사	장병환 2618-5678	철산2동 463-18 경기매일 사장
감 사	윤 철 2616-2392	철산3동 222-1 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이 사	김경표 689-8689	철산3동222-1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 의장
이 사	박천범 016-755-8553	구로구 도림동 두산베어스타워 퍼스트창업연구소 소장
이 사	이기철 897-0555	소하동 1268 이화프라자 (주) 이선 대표
이 사	이현정 2611-1023	철산동 220-1 영우프라자빌딩 법무법인 광명, 대표변호사
이 사	안성근 2616-1512	광명4동 43-48 금호주택건설 대표
이 사	민완기 688-2001	철산동 219-1 에이스텔 810호 (주)하남물산 대표
이 사	조상욱 2616-6466	철산동 519-49 포세이돈하우스 (주)포세이돈하우스 대표
이 사	김미정 682-2277	철산3동 245-5호 한영빌딩3층 도쿄어학원 원장
이 사	김양주 895-2701	하안동 53-1 골든힐빌딩603호 (주)두레식품 대표
이 사	김갑렬 807-4254	소하동 210번지 정우상사 대표

문화원 가족

문화원 사무국

철산3동 222-1
2618-5800
관리과장 한옥현
간사 정현혜

문화교육연구소

철산3동 222-1
2616-2392
소장 윤철
부소장 이종락
기획팀장 임재춘

오리원익 기념관

소하동 1055-3번지
680-6307
팀장 정은경
간사 원 준

문화의집

광명5동 170번지
680-6156
팀장 오은영
간사 신란희
간사 윤승하

청소년 문화의 집

광명5동 273번지
680-6163
관장 윤철
팀장 이은경
간사 정현주



원고모집

지역 주민의 문화마당
광명문화저널 6호에 실을
주민의 글을 찾습니다.

대상 : 광명시민

내용 : 수필, 시, 기행문 등 삶의 내용을 담은 글

문의 : 광명문화원 (2618-5800)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퍼즐 정답 ▶

¹ 북	학	² 의		³ 달	구	⁴ 지
두		리		래		도
⁵ 칠	기		⁶ 약		⁷ 수	
성		냉	국		⁸ 입	춘
	¹⁰ 갱	이		¹¹ 노		
¹² 사				리		¹³ 피
¹⁴ 진	달	래		¹⁵ 개	나	리

월드컵 성공 개최 기원

제 2회 광명시민마라톤 대회

- **출 발 지** 시민회관 대운동장 - 오전 10시
- **집결시간** 오전 9시
- **출발시간** 오전 10시
- **코 스** (대운동장 - 실내체육관 / 약 5km 구간)
※ 실내체육관 도착 후 잔디운동장 한바퀴 돌고 골인
- **시 상** 1. 결승점 골인 선착순 7명에게 시상(상장 및 부상)
2. 1시간내 (11시) 도착한 모든 선수들에게 푸짐한 경품행사
- **대회당일 참가시민 선착순 1,000명에게 무료티셔츠 증정**

광명시민마라톤 대회 코스(5km)



광명문화축제

Music Festival



5월 9일 (木)

충현서원지 참배 (장소 : 충현서원지)

당신의 음반을 만들어 드립니다. 마당극(전통공연), 테마와 영상이 함께 하는 - 시민합창제
(장소 : 시민회관)

5월 10일 (金)

어린이 연극 “또또의 호기심 일기” (장소 : 시민회관)

당신의 음반을 만들어 드립니다. (장소 : 시민회관)

5월 11일 (土)

미술 · 서예 백일장, 음반벼룩시장, 시민가요제 (장소 : 실내체육관 야외공연장 外)

음악도시 선포식, 스프링 콘서트(Spring Concert) 樂 (장소 : 실내체육관 특설무대)

5월 12일 (日)

월드컵 성공개최 기원 제 2회 광명시민 마라톤 대회 (장소 : 시민회관)

월드컵 16강 기원 패널리틱 대회, 먹거리 장터 (장소 : 실내체육관)